

## ‘대출사기’ KT ENS 결국 법정관리 신청

만기도록 기업어음 491억 상환 못해

최근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일으킨 KT 자회사 KT ENS가 12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기업 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은행과 책임 공

방을 벌여 오던 KT ENS는 직원 김모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물품납품 인수 확인서, 매출채권 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 핵심 용의자 전주엽 뉴질랜드에서 체포

한편 이번 대출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엔에스씨는 전주엽(48) 대표가 뉴질랜드에서 체포되었다.

박태진 기자 tippoo@

## 우리·기업銀 도쿄지점도

## 740억원 불법대출 포착

〈우리銀 610억·기업銀 130억〉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

비자금 60억 국내유입 포착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최대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포착됐다. 앞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6면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약 610억원, 기업은행은 약 130억원의 불법대출이 도쿄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의 도쿄지점 직원 일부가 자신의 연봉보다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불법대출 자금 규모를 최대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자금으로 활용된 액수와 용처를 놓고 계좌 추적 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대출 연루자와 자금 용처 또한 밝혀져 적잖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당시 도쿄지점에 근무하

면서 비자금 의혹과 연루됐던 직원이 현재 이 은행 자회사(위수탁 업무) 고위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전직 도쿄지점 직원이 비자금으로 국내에서 빌딩을 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도 국내로 유입한 돈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경우 불법대출 규모가 당초 17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검사 과정에서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현재 검찰은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불법대출을 대기로 받은 리베이트는 국내에 반입된 금액만 30억 원으로 일본 현지에 남아 있는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도쿄지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신한은행 등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 외환, 산업은행은 상반기 중 자체 검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대출 규모가 크지 않아 부정대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안철우 기자 acw@

## 지역개발 규제 풀어 14조 투자유발 효과

정부, 지자체 주도형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산지 개발 촉진 산업입지 공급 확대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다변화, 산지 규제 완화 등 지역개발 규제를 풀어 14조 원 이상의 지역투자 활성화 효과를 일으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발전위원회 연설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

는 이를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중점을 둔 시·군 단위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지역 주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규제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준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행정구역별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지역 정책을 지양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 변화를 피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 서비스를 서로 교류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191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현재 구성했으며 이들 시·군이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우선 시·군별로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업해 3대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핵심과제로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 재원 1조원 확대,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투자선도지구 신설, 공용수면 매립 시 부분 준공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13조9000억원의 기시적 효과와 투자는 예상되며 효과와 산출이 어려운 과제까지 포함하면 14조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데다 그린벨트 해제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난개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대책이 차자 6·4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동일본 대지진 3년…수산물 소비 회복세



갈치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34.8% 증가하고 수입산 연어 매출도 42% 늘어나는 등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불안감이 누그러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평일임에도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 “정신나간 애플”

애플이 삼성에 특히 5건 침해를 주장하며 1건당 8달러의 로열티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미국의 2차 특허재판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1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팅이었다.

포스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

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은 지난 1월 23일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 심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특허 1건당 8달러, 총 40달러를 요구할 방침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잡금

은 객관적으로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펠리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애플은 제품 1대당 로열티를 약 7달러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평균적으로 약 12만 5000개의 특허를 사용한다”며 “애플의 계산대로라면 스마트폰 1대당 드는 특허비용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고집었다.

애플과 삼성의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기처분신청은 기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가계대출 11개월만에 감소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줄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

### 1월 가계대출 잔액

685조2000억원

(단위: 조원)  
※출처: 한국은행



신했으나 11개월 만에 내림세로 바뀌었다.

이진영 기자 mint@

### 어음부도율 다시 상승세

지난달 어음교환소에 교환 회부된 어음과 수표(274조478억원) 가운데 5413억원어치가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부도율은 0.20%로 작년 동기(0.09%)의 2배 수준에 달했다.

어음 부도율은 동양그룹·기업어음(CP)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 0.24%까지 치솟았다. 이후 10월 0.22%, 11월 0.12%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동양·STX 관련 어음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12월 0.18%, 올해 1월 0.17% 등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immj@





#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준공업시설 활용 가능해진다

〈여의도 면적 4.3배·12.4㎢〉



정부 주도서 지자체 주도로 개발

## 2~4개 시·군 연계 56개 '행복 생활권' 추진

SW융합 등 특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맞춤형 재정·세제 지원…규제 완화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사'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 투자진행회의에서 관계부처 협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 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광주·경주 등 중추도시 생활권이 20개, 충남·충북·세종·대전·경북·영주·봉화 등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전북·무주·진안·장수 등 농어촌생활권이 21개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사업 육성(62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15개 지역특화발

김성배 기자 sbkim@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내용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타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역이 의견한 내용을 토대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 정부가 재정지원·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시 민간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17개로 해당 지역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4.3배인 12.4㎢에 걸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에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그린벨트 해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 등 12곳서 17개 사업 진행

4년간 8조5000억 투자효과 기대

## 휴양시설 등 산지규제도 대폭 완화

도시 첨단산단 9개소 새로 지정

개발권역, 14개 투자선도지구로

제지역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끼다롭기로 유명하던 산지규제도 완화한다. 휴

양·힐링·신재생에너지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산지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산림복합단지지구를 신설해 산림휴양시설 설치를 늘리고 보전산지 내 요양병원에 주차장·관리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에 편익할 수 있는 산지면적도 3㏊에서 10㏊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율재원은 당장 오는 2017년까지 총 7조3000억원가량 늘릴 방침이다.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의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 5000억원까지 늘리고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금 일부를 옮겨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2조8000억원가량 자율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첨단산업단지를 9개소 이상 새로 지정한다. 우선 올해 인천, 대구, 광주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단소(전주) △나노(밀양) 등 지역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노후된 산업단지 25곳을 리모델링한다.

기존에 5개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는 '투자선도지구'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에 3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한 뒤 2017년까지 시·도 생활권별로 총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가스공사 www.kogas.or.kr

# 국민행복을 위한 에너지코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확보에 땀 흘리는 것은 세계 앞에 당당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 KOGAS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ETTER ENERGY, BETTER WORLD

# 2월 취업자 83만5000명↑ 12년 만에 최대 폭 증가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2월 취업자 수가 11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2월 취업자 수는 248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83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02년 3월 전년 84만2000명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8000명 증가했다. 1월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1년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2월 출업시기와 맞물려 실업자 수도 동반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7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8~10월은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

김부미 기자 boom@

다. 올 1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70만명대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취업률은 64.4%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15~29세 청년층 고용시장도 다소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8000명 증가했다. 1월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1년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2월 출업시기와 맞물려 실업자 수도 동반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7월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보였고 8~10월은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

김부미 기자 boom@

# 지방채무 100조 시대…재원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문제점은

중앙·지방 재정분담…지자체 재정난에 현실성 의문

15개 특화사업 중 11개 지역공약과 겹쳐 중복투자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정책 남발 아니냐" 지적도



정부가 12일 지역 주도로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가 남아 있다. 핵심 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역 공약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무 100조원 시대' 어려운 지자체 살림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24조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이행 지원 마련도 험겨운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 재정 확충 등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

가 붙는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큰 틀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후보군으로 생각하는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 영상(부산), SW융합(대구), 디스플레이(충남), 건강생명(강원) 등 11개는 지역 공약 사업과 관련돼 있다. 중복·과잉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시·도별로 한 개의 사업을 중

점 육성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 사업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추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7월말까지 사업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게 될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분담한다.

연일 '지자체 무상보유예산 고갈', '지방 정부 세입부족'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방정부로선 중앙에 비용 부담을 떠넘길 소지는 충분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체계 개선 차원에

서 작년 9월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 재원을 향후 3년간 4조 5000억원 늘려 나가겠다는 정부의 구상도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만큼 선심성 정책 남발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7월말까지 사업선정이나 세부 내용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이 지역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하게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민정 기자 puri21@

## "13조 농업예산 누수 없게 지역특성 맞는 농정 추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취임 1년



"평생 연구소에 있으면서 농정 연구를 했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고 보니 그 렇게 흐락흐락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초등학생이 1, 2, 3, 4 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지만 내놓을 게 마땅히 없어 겸연쩍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촌과 농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 계 현안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와 관련해선 "많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와 과거와 같은 불협화음 없이 AI 방역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 '동북아 오일허브' 만든다

3600만 배럴 규모 탱크터미널 건설

4대 과제 통해 60조 경제효과 기대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을 위해 360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또 과세 환급 간소화 등 4대 과제를 통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4대 과제로 산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 완화, 석유 트레이더 유치, 석유제품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용 저장시설 마련을 위해 2조원대 민간자본 투입으로 울산과 여수지역에 2020년까지 연간 최대 4억 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오일허브코리아여수 설립을 통해 원유 350만 배럴, 석유제품 470만 배럴 등 총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해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울산 북항엔 석유제품 99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원시설 구축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

남한의 경우 북항사업과 연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오는 2020년까지 원유 1850만 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현재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넘어서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파세 환급 절차도 완화된다. 정유공장의 보세 공정 특허를 통해 과세 보류상태에서 정제 후 내수용으로 사용 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석유 트레이더의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피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 트레이더의 국내 진출 시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 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 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센터를 제공한다.

김희준 기자 h9913@



LPG 희망기금 '총전' LPG 업계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LPG 희망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 한·이란 '통신·의료' 서비스분야 교역 재개

통신·의료·건설 등 서비스 분야의 이란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이나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태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의 용역에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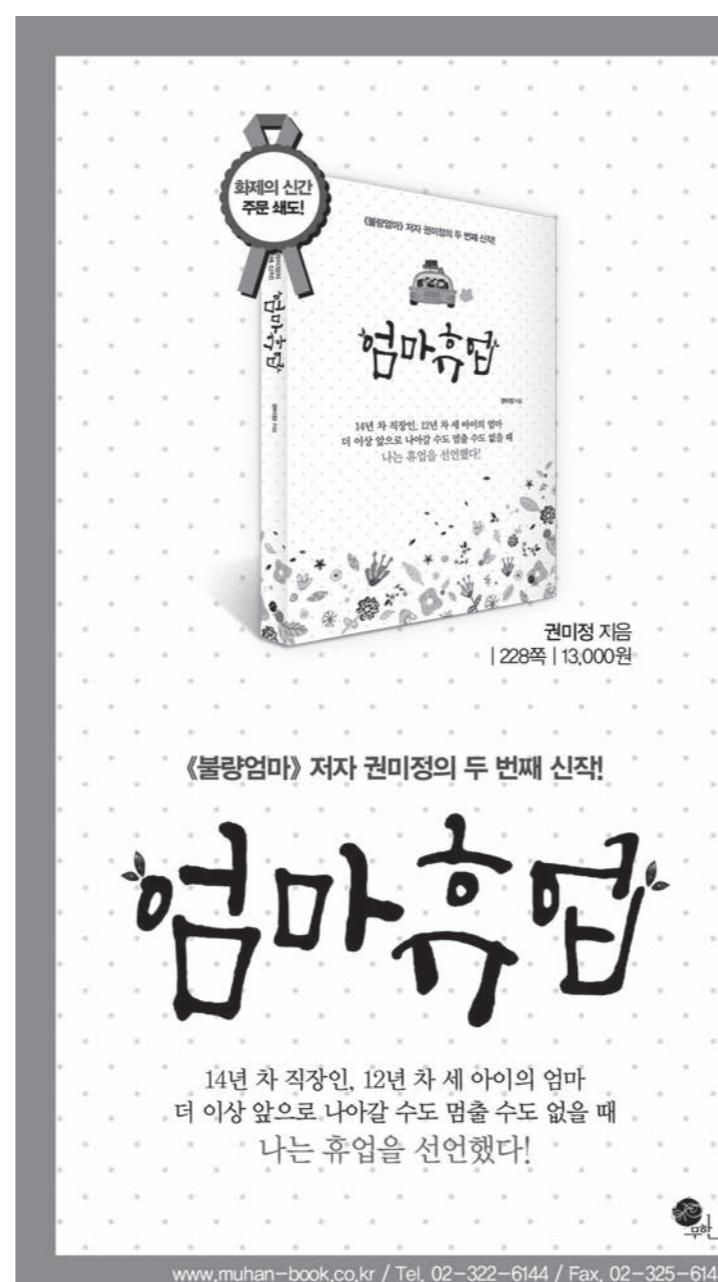
이 중 금융·보험 등 자본 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사업정지 명령에 따른 공표

SK텔레콤(주)는 지난 3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4년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12일  
SK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성민



# 글로벌 '경제영토' 61.4%로… 칠레·멕시코 이어 3위권

## 한·캐나다 FTA 8년 8개월만에 타결

한국산 자동차 최대 수혜… 관세 2년내 철폐  
日과 경쟁서 우위… 가전제품 수출길도 탄력  
쇠고기 수입 관세 40% 15년 걸쳐 없애기로  
'캐나다구스' 5만원 내리고 연어 소비 늘 듯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장벽을 허물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문턱을 낮추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의 타결은 특히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득실교환으로 해석된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이다. 지난해 캐나다로 수출된 자동차는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에 달한다. 수출물량 또한 13만3000대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에 이어 5번째다.

특히 캐나다는 이번 FTA 발효 시점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2년내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FTA가 내년에 발표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캐나다는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고 유럽연합(EU)과는 추가 협상 문제로 밸류가 미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기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미국·멕시코 등과도 동등한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원성자 원산지 관정과 관련해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을 인정하기로 한 점, FTA 발효 즉시 자동차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한·호주 FTA에 비해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한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가 광우병 발병 전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큰 체감효과를 느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도 주로 유연탄·펄프·원목 등은 이미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액수의 3분의 2정도는 이미 무관세(無關稅) 대상이다.

다만 작년 겨울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끈 '캐나다구스'와 같은 의류는 한·캐나다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가 더 넓어지게 됐다. 이번 타결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2012년 IMF 통계 기준)는 종전 58.9%에서 61.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칠레(78.5%), 멕시코(64.1%)에 이어 3위권을 기록하게 됐다.

김희준 기자 h9913@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자동차와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득실 교환으로 해석된다.

한국 관세 철폐	캐나다 관세 철폐
· 쇠고기(40%): 15년내	· 승용차(관세율 6.1%): 3년내(발효시점부터 균등 인하해 2년 뒤 완전 철폐)
· 돼지고기(22.5~25%):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내	· 자동차부품(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 품목별로 즉시 또는 3년내
· 쌀·분유·치즈·감귤·인삼 등 211개 품목: 양허 제외 부여	· 타이어(7%): 5년내, 섬유(최고 18%) 대부분 3년내
· 꿀·대두·맥아·보리 등 11개 품목: 저율관세할당(TRO) 부여	· 20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 기초연금 7월 지급 물건너가

### 합의 불발… 내달 국회로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금 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데 4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를 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에 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정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금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김부미 기자 boom@

## "증거조작 의혹 남재준 원장 경질하라"

### 새누리, 선거에 불똥튈라 전전긍긍… 야권도 책임론 총공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사진) 국가정보원장 경질설이 힘을 얻고 있다.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에서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 직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당내 여론이 싸늘해진 것이다.

특히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국정원장이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병국 의원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국정원이 1년 반 이상 언론의 중심에 등장한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한 방증"이라며 "지워고 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천이게 이제도 의원도 전날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SNS에 "간첩이냐 아니 나는 법원이 가릴 문제"라면서도 "다만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글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남 원장 책임론을 들고 나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전병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과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도 "남 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구 의원은 남 원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 年 3조 육박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손질

여야가 연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고 구분회계도 하지 않아 과다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돈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부처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의중 기자 zerg@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동부화재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 나를 위한 맞춤형 보험

165개 담보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보장 설계를 제공합니다.

\*위 내용은 해당 특별약관 기입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보증하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금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자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상의법 제2014-024호(2014.1.20))

### 내가 원할 때 돌려주는 보험

적립형보험 50세~100세까지 고객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보험

신체보장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면역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상 정부정책, 언제 또 바뀔까

중 정보유출, 어떤 피해 닥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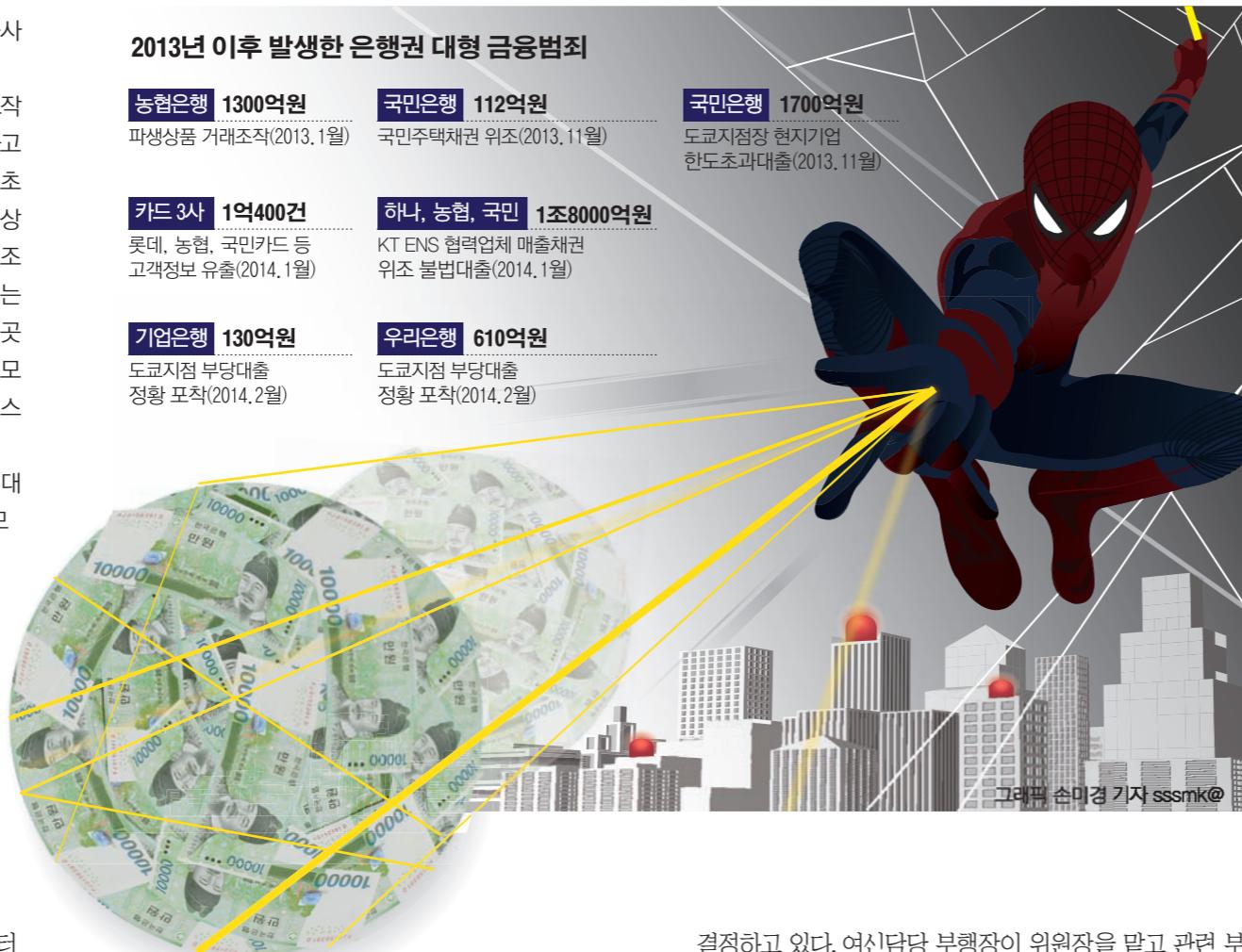
하 사기대출, 지금은 없을까

# 금융시스템 경고등이 꺼졌다…한국 경제 빨간불 켜진다

‘5000억원대 불법대출, 1조8000억원 대출사기, 1억건 개인정보 유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허점과 부실, 오작동으로 드러난 출작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금융권이다. 을 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위조된 대출 서류로 1조8000억원의 돈이 오가는 데도 하나·국민·농협은행 등 피해 은행 16곳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우리 금융권의 허술한 여신시스템을 그대로 보여 준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 도교자점장의 대형 횡령 사건과 올해 초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은 대출사기 사건까지 금융시스템 붕괴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금융회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뢰 추락에 따른 경제적 위험수준이 예사롭지 않다.



◇내부통제 경보시스템은 없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이 화근이었다. 지난해 1월 농협은행에서는 130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파생상품 딜러 A씨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2010~2012년 거래 가격을 조작하고 가짜 거래 명세를 만드는 식으로 손익을 조작했다. 2년여간 A씨의 거래 조작을 눈치챈 은행 내부자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건 역시 2년 넘게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 더구나 은행 감찰반 직원은 체권을 위조한 사실을 눈감아 끊고 장구 직원은 체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바꿔 끊었다.

올초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공동 사기대출의 경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적발하기 전까지 해당 금융사는 눈치조차 제지 못했다. 정밀한 여신관리 시스템 없이 대기업 인감만 제출하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 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실제 이번 대출사기 사건은 관행에 얹매인 여신심사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겐 지나치게 엄격하면서 대기업엔 지나치게 관대한 금융권의 이중적 자세도 다시 문제로 지적됐다. 1조8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지만 현장 방문과 크로스 체크라는 원칙을 무시했다.

원리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내부통제가 ‘이제껏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는식의 관행 때문에 무력화됐다. 사고가 날 때마다 같은 금융회사의 이름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얘기다.

횡령사건에 대출사기·정보유출…

피해은행은 수년간 까맣게 몰라

도덕적 해이·내부통제 허술 ‘심각’

은행 여신심사시스템 도마 위에

금융, 공적기능…사회적 인프라

신뢰 추락으로 경제까지 ‘흔들’

결정하고 있다. 여신담당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정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신을 결정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은행장은 원칙적으로 대출 심사과정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여신·리스크 관리·자금담당 임원과 간부 6~8명으로 구성된 여신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이다. 과거 은행장 또는 여신담당 최고 임원, 부장이 전결로 대출하던 것을 여신위를 통한 협의체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대출 책임이 있어 은행장 개인에서 집단방어 체제로 변경됐다는 점도 큰 변화다. 문제는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심사 과정에 외부 청탁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출 비리가 발생해 은행장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금융당국이 은행장의 여신심사 전결권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실 대출에 따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거래의 기업여신의 경우 은행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를 공식화하자는 의견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잇따른 대출사고로 은행장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책임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장이 공식적으로 여신심사에 관여토록 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여신이 실행된 이후 사후관리에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심사와 같은 핵심 업무에서 조차 기본적이고 필수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 경영의 방만함과 느슨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구조화 여신 문제점 여전히 노출…대출사기 또 터진다 = 우리 금융시스템이 초보적 내부 범죄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절실히라는 얘기다. 특히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집하다간 또 다른 대출사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들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는 기업대출을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를 통해 가능 여부를

인철우 기자 acw@

## 불법·부정…금융사고 막으려면

### “더블체크 원칙 지키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허술한 금융시스템 체계를 단적으로 노출시켰다. 금융권 전체가 초보적 내부 범죄까지도 걸러낼 수 있는 상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금융회사 관행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형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액이 큰 대출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각자 맡은 업무에서 책임을 분명히 지는 문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무의 필수인 ‘더블체크(재확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절실히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라는 인식을 갖는 동시에 도덕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들이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투자나 직원교육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이런 점을 이용한 사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 안전성과 거래 관계를 중시하는 쪽으로 풍토가 바뀌고 CEO의 영업 연속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보안시스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보안시스템은 아무리 암호화해도 내부자나 용역직원이 비밀번호를 다룰 수 있는 구조”라며 “다른 차원의 보안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이버 내부자 위협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보안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내부자의 행동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정상적 패턴과 다른 행동이 감지되면 이상행위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김 교수는 “미국도 현재 시스템의 개발 단계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도 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선진화된 보안시스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kimm@

## 박근혜 정부의 파워 엘리트 50인을 집중 해부한다!

파워 엘리트 50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들!  
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숙지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주목하라!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 값 6,000원

청와대, 내각, 국회, 사법부, 경제계, 학계를 종 망라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 50인의 주요 이력과 인물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고, 생생한 취재를 통해 박 대통령과의 인연, 평소 성격이나 업무스타일, 주변 평판까지 풍부한 정보를 담아냈다. 여기에 인물별 주변 인맥을 낱낱이 파헤쳐 거미줄처럼 얹힌 한국의 권력 구조와 인맥, 학맥도 한 눈에 읽을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 50

박근혜 정부의 주역으로 활동할 각 분야 핵심 브레인의 면면을 통해 우리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와 발전상을 미리 짚어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웰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세계최초 전동식 휴트니스 승마기 개발,  
20년 연구 검증된 No.1 승마과학은

## 파나소닉 조바 뿐입니다



### 증명된 7가지 운동 효과로 다이어트도 손쉽게

조바는 올라타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이끌어냅니다.  
근육, 균형감각, 유연성, 당 소비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간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말의 동작을 재현한 5축을 이용한 [신 8자형 동작(5세대)] 채택  
말의 걸음걸이에 근접하기 위해 파나소닉이 철저하게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전후, 좌우의 단조로운 동작뿐만 아니라 [비틀기], [상하]운동을 추가.  
부드러운 승마 동작을 재현하여 운동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 허리를 날씬하게

- ▶ 날씬한 허리를 가진 아름다운 보디라인
- ▶ 중년 비만 대책
- ▶ 체형의 결점을 바로잡아 젊고 생기있게

#### 운동 부족 해소

- ▶ 올라타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된다
- ▶ 헬스클럽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계속할 수 있는 운동 습관
- ▶ 근육을 움직여 당 소비 증가

#### 아름다운 자세

- ▶ 복근과 배근을 단련하여 등이 쭉 펴진다
- ▶ 골반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여 자세가 골라진다
- ▶ 선 자세, 걷는 자세가 아름다운  
자세 미인이 된다



#### 다이어트에

- ▶ 근육을 단련하여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 ▶ 조바운동으로 체지방 연소
- ▶ 허리 및 힘의 집중 관리



#### 허리와 다리의 강화

- ▶ 허리 주변 근육의 뭉침을 풀어줘서 유연성 증가
- ▶ 복근 및 배근의 근육 단련
- ▶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허리와 다리



#### 골프 비거리 향상

- ▶ 허리와 다리의 근력이 증가하여 스윙이 안정
- ▶ 고관절 주변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매끄러운 스윙 가능
- ▶ 18홀을 거뜬히 둘 수 있는 체력향상



#### 고령자의 보행 능력 유지에

- ▶ 운동으로 다리의 근력을 향상시켜  
안정된 보행이 가능
- ▶ 고령자의 무릎, 허리, 심박에 부담이 적은 운동
- ▶ 균형감각 향상

#### JOBA History

#### 파나소닉 승마기(조바)의 진화

세계 최초로 파나소닉에서 탄생시킨 승마 휴트니스 기기 「조바」

1993. 가을	1995. 4~	1998. 4~	1998. 10~	2000. 10~	2003. 5~	2005. 6~	현재~
승마 요법 시스템 개발 시작 유럽의 승마 요법을 시찰한 니혼의과대학(당시)의 키무라 교수는 일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사에 의견을 탄진하였다.	말 형태의 다리 6개 달린 로봇 시험 제작 6개 다리로 승마 동작을 재현하였다.	대학과 공동 연구로 생체에의 효과 검증 후생성(당시)의 워낙 연구보조를 빌어 니혼의과대학, 고치대학 의학부, 고치공과대학과 공동으로 근력을 중심으로 한 계측 실험을 실시한다.	말 형태의 다리 6개 달린 로봇을 시설에 납품 시설용의 승마 마신으로 오카 아마한과 교토 부의 시설에 납품.	가정용 [조바] 판매 시작 제 1, 2, 3 세대 가정용조바(승마기) 판매 시작 초대 모델 → 2세대 모델 → 3세대 모델	당뇨병 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발표 「승마운동 기기를 활용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운동요법으로서의 유효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 일본체력의학회, 일본백의학회 등 에서도 발표하였다.	4세대 조바 발표 8자형 동작 추가로 더욱 효과적인 휴트니스를 실현. 4세대 모델	5세대 조바 신발매 5세대 모델부터는 비틀림 상하를 추가한 신8자형 동작 추가로 승마동작과 더욱 비슷해졌습니다. 5세대 모델

LET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박인비 선수의 통산 14번째 우승  
세계적 품질의 파나소닉이 세계랭킹 1위 박인비 선수와 함께 합니다

[여성기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기업]



창조브랜드 대상은 Korea CEO Summit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한 도시(생활) 및 디자인사업, 문화사업, 융합사업, 건강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브랜드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돈 굴릴 데 없어 한숨짓는 은행

## 기업銀 5조 대출재원 '낮잠'

우량기업은 대출 원치 않고  
부실 위험 높은 중기만 요구  
금융당국 가계빚 안정 정책에  
가계대출 늘리기도 어려워

은행권이 대출 재원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5조원 상당의 대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대출 수요가 줄어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빚 안정화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확대 저지를 권고한 만큼 가계대출을 늘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을 경영전략의 회두로 수익성 제고를 외쳤지만 대출을 해 줄 마땅한 공급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우량 기업의 대출 수요가 급감한 반면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5조원 가량의 대출재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출받을 기업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 재원은 넉넉하지만 소위 수익성이 있는 우량 기업은 대출을 권해도 받지 않고,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만 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용이 적게 드는 저원가성 예금 중심의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로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 수요가 줄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수요 만큼 대출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기업 그룹의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이미 대규모의 충당금을 쌓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마냥 늘릴 수 없는 탓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가계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자체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가계대출을 맘놓고 확대하기도 어렵다. 은행권의 주 수익원인 우량 기업과 가계대출 통로가 사실상 막힌 셈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부실 발생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 작년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7400억 지원

지난해 은행권이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은 지난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총 7363억원(4302건)을 지원

했다. 개인사업자 총여신(190조5000억원) 대비 0.39%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7000만원이다.

만기연장이 56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1385억원), 이자유예(930억원), 분할상환(10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지영 기자 gutjy@

**당신을 위한 올바른 약속**  
**ORANGE PROMISE**

- 1위 국내 글로벌 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FY 2012 수입보험료 기준)
- 9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05 ~ '13년, 한국농수협보험회/컨설팅)
- 323.6%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2013년 3월 기준)

### 재선 성공 신종백… M&A 시장 돌풍 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오른팔’ 김성삼 신용공제대표도 연임  
여유자금 바탕 현대·대우證 등 검토 중



시기와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금고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인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권 최대 매물인 우리은행 매각이 연내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신 회장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은 최근에도 여러 차례 우리은행 인수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앞서 두 차례 우리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바 있다.

아울러 신 회장과 지난 4년간 함께 했던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신용·공제 부문 총괄, 실무, 대(對) 정부 관계 등을 맡고 있다. 앞서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 MG신용정보(옛 한국신용평가) 등의 인수작업에도 김 대표가 실무적인 뒷받침을 한 바 있다.

신 회장이 M&A에 적극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종합금융협동조합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8년까지 3월까지 그가 만들어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A 큰손에서 나아가 금융지주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이다.

이진영 기자 mint@



기업銀, 소외층 국립공원 체험  
‘IBK자연나누리사업’ 4억 후원

IBK자연나누리 사업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 본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IBK자연나누리사업’을 위한 후원금 4억원을 전달했다. IBK자연나누리사업은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국립공원과 유적지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8000여명이 참여했다.

### “보험산업 발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취임 1주년 강호 보험연구원장  
“시장 친화적 연구원 만들겠다”



생명(현 현대라이프) 이사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부사장을 역임한 업계 전문가다. 앞으로 강 원장은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강 원장은 시장 친화적인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원들의 대우 개선을 꾀했다. 업무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강 원장은 회원사를 설득해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참석한 회원사 만장일치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지원하는 박사들의 이력서가 많이 쌓여 있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다”며 “연구원의 도약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 신용한도에 차량담보 더해 대출

아주캐피탈 ‘오토담보론’

직장인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금리는 최저 9.9%, 최고 27.9%다. 차량 대상은 국산 승용차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같은 15대 수입차 브랜드다.

대출 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균저당 설정 비용 및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모집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담보대출이 자동차를 맡긴 후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단기 소액 급전 대출인데 비해 아주캐피탈 오토담보론은 타당 차를 그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신용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이 결합돼 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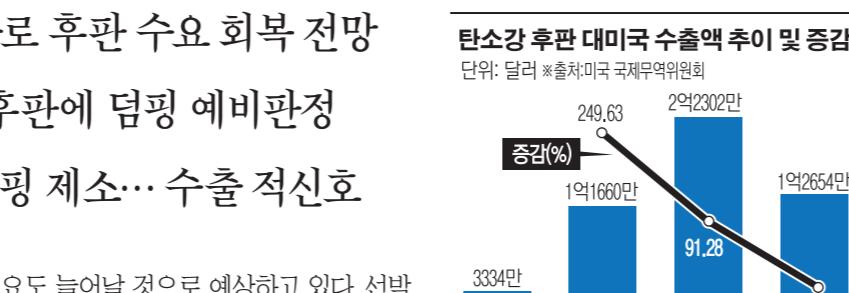
# ‘내수·수출’ 명암 엇갈린 철강업계

올들어 국내 조선수주 증가로 후판 수요 회복 전망  
미 상무부,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덤핑 예비판정  
멕시코·캐나다 등 잇단 반덤핑 제소… 수출 적신호

철강업계가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증가로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국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이 나오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철강 및 조선업체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국내 조선업체의 신조선 수주는 세계 조선 발주의 40%를 웃돌며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조선업체가 2월까지 수주한 물량은 313만 CGT로 이는 작년 연간 수주액 411억 달러의 23%에 이르는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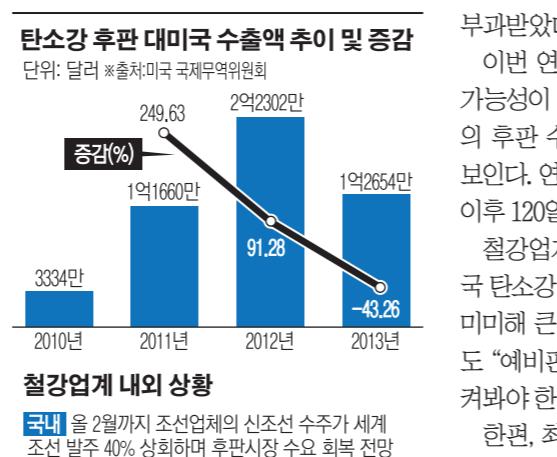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조선용 후판의 수



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박 수주에서 건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는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후판 수요 증가가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후판 판매 실적을 견인해 올해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은 호재와 함께 해외발 무역제제라는 악재도 만났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서 4.64%의 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한국



산 해당제품이 미국 내에서 정상가격 이하(LTNV)에 판매됐다고 판단하고 덤핑판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 에드진 머레이, 삼성C&T, 삼우EMC, TCC 동양 등 5개 업체는 각각 반덤핑 판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번 연례재심에서 덤핑판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국내 철강업계의 후판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이후 120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모회사의 경우 미국 탄소강 후판 수출 비중은 1만톤 정도로 미미해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면서도 “예비판정인 만큼 최종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잇따른 해외 반덤핑 제소로 고전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6월 한국산 차량용 강판과 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고,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재 중 평판암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대만과 태국에서도 국내산 스테인리스스틸 냉연제품과 열연강판 판세율을 각각 한시 부과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고음질 플레이어로 재기 노리는 코원

2분기 ‘플레뉴 P1’ 출시 예정  
올 연말까지 흑자 전환 목표

코원이 2분기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재기를 노린다. 연말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코원은 올 2분기 출시를 목표로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신제품인 ‘플레뉴(Plenue) P1’을 개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플레뉴 P1은 일반 CD 수준의 음질인 44.1kHz를 웃도는 최대 192kHz/24비트의 음원을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하고 3.7인치 AMOLED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128GB의 저장공간을 갖췄다. 마이크로SD 카드 슬롯을 내장해 용량 확장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채택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올 2분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코원은 올해 플레뉴 P1을 출시하면 아스텔앤컨(A&K)으로 국내 고음질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이리버와 기존 음향기기의 강자 일본 소니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는 수입만원대에서 수백만원대의 높은 가격대를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음향마니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1년부터 2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코원은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MP3, 블랙박스 등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77억9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3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

코원은 올해 고음질 포터블 플레이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회사 관계자는 “플레뉴 P1의 출시 시점과 맞물려 흑자 전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hec98@



파격적 원형 디자인  
LG 공기청정기 출시

LG전자는 본체를 원형으로 디자인한 파격적인 컨셉트의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속 소재에 스판 헤어리안 공법을 적용해 깨끗한 공기 순환을 시작적으로 표현했다. 3MTM 초미세 먼지필터를 적용해 황사는 물론, 초미세먼지보다 125배 작은 0.02μm(마이크로미터) 먼지까지 제거한다. 가격은 40만원대 초반. LG전자는 모델이 서울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LG 공기청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봄바람 탄 수입차 시장… 신차 봇물

내달 시트로엥 ‘피카소’ 시작으로 렉서스·포드 등 줄이어… 올 점유율 15%대 전망

수입차업체가 3월 이후에도 신차를 쏟아내며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입차의 승용차 시장점유율(판매대수 기준)은 15%대를 무난히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이후도 신차 출시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특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 독일 3사 이외의 업체에서 신차가 쏟아지며 수입차 시장의 다양성을 펼칠 전망이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시트로엥은 미니 벤인 ‘그랜드C4 피카소’를 4월 국내에 출시한다. 피카소의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6.2km/ℓ에 달한다. 최대출력은 150마력으로 수입 미니벤의 경쟁 차종인 혼다 ‘오딧세이(253마력)’, 토요타 ‘시에나(266마력)’보다 힘은 떨어지지만 높은 연비가 장점이다. 피카소는 유럽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7만5000대를 넘은 인기 차량이다.

한국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소

형 하이브리드차 ‘뉴 CT200h’를 4월 국내 출시한다. 뉴 CT200h는 원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서 갖고 있는 높은 연비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에 완전히 새 디자인을 더했다. 이외에 렉서스는 지난해 도쿄모터쇼에서 선보인 소형 SUV ‘LX-NF’를 하반기 국내에서 선보이며 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얻었던 일본차의 명성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폭스바겐은 폴프의 고성능 모델인 ‘골프 GTI(가솔린)·GTD(디젤)’를 6·7월께 국내에 선보인다. 피카소의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6.2km/ℓ에 달한다. 최대출력은 150마력으로 수입 미니벤의 경쟁 차종인 혼다 ‘오딧세이(253마력)’, 토요타 ‘시에나(266마력)’보다 힘은 떨어지지만 높은 연비가 장점이다. 피카소는 유럽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7만5000대를 넘은 인기 차량이다.

한국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소

### 연내 국내 출시되는 수입차

업체명	차량명	출시시기	예상가격
시트로엥	피카소	4월	4000만원대
렉서스	더 뉴 CT200h	4월	4000만원대
	LX-NF	하반기	4000만~5000만원대
폭스바겐	골프 GTI/GTD	6~7월	3000만~4000만원대
포드	MKC	하반기	4000만원대
	올 뉴 머스탱	하반기	4000만원대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은 하반기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MKC’를 국내 선보인다. MKC는 2.0ℓ 4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한 링컨의 첫 콤팩트 SUV다. 최근 미국 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다운사이징 추세에 부합해 시장 파급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3사 외에도 일본과 미국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2%대를 기록한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올해는 15%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운전자는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카드를 구매하면 충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2100여곳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이번 민간 충전소 협력과 별도로, 현재 환경부와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도 진행,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오는 2015년까지 전국 100여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다람 기자 zing@

## 대형마트서 전기차 충전하세요

이마트, BMW·포스코ICT와 충전소 서비스 협력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차원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BMW그룹 코리아, 포스코ICT와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3사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60개 이마트 점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첫 충전소는 BMW그룹코리아의 신형 전기차 ‘i3’ 출시 시점에 맞춰 다음달 문을 열 계획이며 향

## 삼성전자, 글로벌 특허 ‘우뚝’

지난해 유럽 특허출원 2년 연속 1위…美서도 2위 올라

삼성전자가 세계 특허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12일 유럽특허청, 관련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미국에서 각각 특허출원 1위, 특허등록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특허영향력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2833건의 특허를 신청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1692건의 특허를 출원해 4위를 기록했다가 2011년 1733건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이후 2012년 2289건을 출원해 처음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에 이어 유럽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곳은 지멘스(1974건)였고, 필립스(1893건), LG전자(1648건), 바스프(1577건), 로버트보쉬(1574건), 미쓰비시(1327건), 제너럴일렉트릭(1257건), 퀄컴(1204건), 에릭슨(1184건) 등 순이었다. 2012년 50위에 머물렀던 애플은 지난해 66위까지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지난해 미국의 특허등록 기업 순위는 IBM이 6809건으로 2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4676건의 특허를 등록해 2011년부터 3년 연속 2위 자리를 차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럽과 미국에 등록된 세계 통합에블루선(LTE)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기자 js62@

### 세계 특허 동향 (2013년 기준)

국가	등록 건수	유럽	출원 건수
IBM	6809건	삼성전자	2833건
삼성전자	4676건	지멘스	1974건
캐논	3825건	필립스	1893건
소니	3098건	LG전자	1648건
MS	2660건	바스프	1577건
파나소닉	2601건	로버트보쉬	1574건
도시바	2416건	미쓰비시	1327건
혼하이정밀	2279건	GE	1257건
퀄컴	2103건	퀄컴	1204건
LG전자	1947건	에릭슨	1184건

\*출처: 유럽특허청 및 IFI 클래리스

건), 마이크로소프트(2660건), 파나소닉(2601건), 도시바(2416건), 혼하이정밀(2279건), 퀄컴(2103건), LG전자(1947건) 등 10위권에 머물렀다. 미국 내 애플의 특허 등록 건수는 1775건으로



# 中 양대 인터넷 거물 불붙은 'M&A 전쟁'

중국 양대 인터넷 거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인수·합병(M&A)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8억400만 달러(약 8560억원)에 차이나비전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인수로 알리바바의 차이나비전 지분은 총 27.0%에서 70.8%로 확대됐다. 차이나비전은 TV드라마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알리바바는 지분 확대를 통해 콘텐츠 경쟁을 본격화했다고 전문가들은 폴이했다.

그동안 알리바바는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바이두, 텐센트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차이나비전은 지난해 제작한 '신서유기·서유한마관'이 개봉 첫 주 925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7월 스마트TV 사업에 진출해 콘텐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인터넷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현재 4억명을 넘으며 4세대(4G) 이동통신망 도입으로 그 수가

알리바바, 차이나비전 지분 확대...콘텐츠 확보 총력

텐센트, 이번주 JD닷컴 인수 전자상거래 사업 보완



잭 마 알리바바 회장



마화텅 텐센트 회장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알리바바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M&A를 통해 회사 약점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오토내

비를 16억 달러에 인수해 모바일 인터넷 사업을 강화했으며 슬러너 지분을 사들여 미국 전자상거래시장에도 진출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1년간 M&A에 30억 달러를 투

입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최대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 위챗(WeChat)으로 유명한 텐센트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JD닷컴 지분 15%를 2억1500만 달러에 인수해 알리바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텐센트는 JD닷컴이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하면 지분 5%를 추가로 사들이고 회사의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부를 JD와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 인수로 마틴 라우 텐센트 사업이 JD 이사회에 합류한다.

바클레이스는 "텐센트가 위챗에 또 하나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JD도 위챗 실제 사용자 2억7200만명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양사 모두에 '원-원(win-win)"이라고 설명했다.

JD는 중국 전역에 82개 재고창고와 1453개 배송사무소 1만8000명의 배송 전담 직원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는 물류경쟁력 확보라는 이점도 얻게 됐다.

중국 전자상거래시장은 어마어마한 성장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시장규모가 오는 2020년에 65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크림共 독립 선언

의원 100명 중 78명 찬성  
"러시아 귀속절차 밟을 것"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했다고 이타르 터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림 의회는 이날 비상회의에서 '크림 자치공화국 독립 선언서'를 제작의원 100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크림 의회는 선언서에서 "(특정지역)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및 다른 국제문서와 코소보 독립의 합법성을 인정한 2010년 7월 22일 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등에 기초해 독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르비아로부터의 코소보 독립과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한 국가 일부 지역의 일방적 독립 선언이 국제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문은 전했다.

블라디미르 콘스탄티노프 크림 의회 의장은 "선언서 자체로 우리는 크림을 공화국으로 선포했으며 이제 독립 공화국의 자격으로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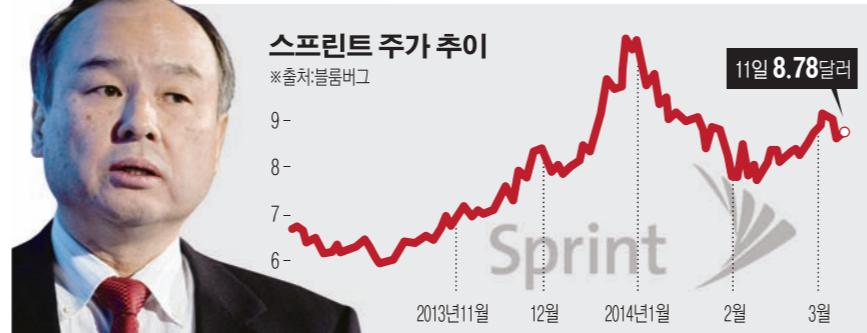
동일본에 평화를

일본 미야기현 나토리시 시민들이 유리아게 중학교에서 11일(현지시간) 동일본 대지진 3주년 맞아 평화를 염원하며 비둘기 모양의 풍선을 날리고 있다. 2011년 대지진은 도호쿠 지방을 강타해 1만8000명이 목숨을 잃고 27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대지진의 여파가 남아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대지진 3주년 추도식 기자 나토리/AP연합뉴스

## 손정의 "수익 포기하더라도 요금인하"

〈소프트뱅크 회장〉

T-모바일 인수 승인시  
미버라이즌·AT&T와  
가격·기술전쟁 벌일 것  
점유율 확대 위해 필요



다면 좋다"며 "3대 이통사가 경쟁하는 것이다. 나는 대규모의 가격전쟁과 기술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미국 양대 이통사인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 AT&T와 경쟁하면서 기업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통신은 폴이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미국 3위 이통통신사 스프린트를 인수했으며 4위 이통사인 T-모바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손정의는 소프트뱅크 회장은 경쟁하고 있다.

손 회장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라면 당분간 수익을 올리는 것을 미룰 수 있다"며 "나는 1등이 되기를 원한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 만일 기업규모가 가격전쟁을 벌일 정도로 커진

대안으로 무선 광대역망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 상공회의소 연설에서도 "캡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로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접속료가 오를 수 있다"며 "나는 그 대안을 제공하려고 한다.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10배 빠르면서 가격은 낮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체타샤트리마컨설팅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무선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약 2억명에 달한다. 체타샤트리마는 "지난해 미국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 1.2기가바이트(GB)로 전년의 690메가바이트(MB)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美 영향력 있는 젊은 CEO

### 저커버그 제치고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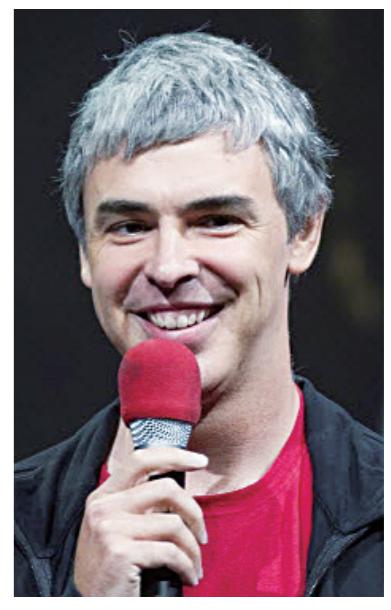
〈페이스북 CEO〉

〈구글 CEO〉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최고경영자(CEO)에 선정됐다.

포브스는 11일(현지시간) 금융투자 분석업체 S&P캐피탈 IQ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한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톱 20' 가운데 래리 페이지 구글 CEO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40세인 래리 페이지는 세계 최대 검색포털업체 구글의 공동설립자로 회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래리 페이지 구글 CEO

구글의 시총은 4094억 달러(약 438조원)에 이른다. 회사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페이지 CEO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양만장자다. 지난해 구글의 주가 상승행진이 지속되면서 그의 순자산은 300억 달러에 달해 포브스의 세계 400대 양만장자 순위에서 13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차지했다.

저커버그는 올해 29세로 이번 순위에서 유일한 20대 CEO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모바일 사업 확대를 위해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 '왓츠앱'을 19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할 정도로 '통 큰' 20대 CEO다.

올해로 탄생 10주년을 맞은 페이스북은 모바일 광고 수입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페이스북 시총은 1825억 달러에 달하며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에만 130% 넘게 올랐다.

3위는 시총 399억 달러인 아버스 코스터(34) CEO가 여성 기업인 중 유일하게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글 부사장 출신인 마이어는 야후에 합류한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소셜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부활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4위는 시가총액이 135억 달러인 미국 헤지펀드업체 아이칸엔터프라이즈의 키스 코자(34) CEO가 선정됐으며 5위는 다니엘 슈워츠(33) 버거킹월드와이드 CEO가 이름을 올렸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글로벌 리포트

### 디즈니, 메이커스튜디오 인수 임박

월트디즈니의 메이커스튜디오 인수가 임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비아 해군은 전날 이 유조선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반군은 이 주장에 부인했다.

리비아 라니통신은 유조선이 악천후를 틈타 항구를 빠져나갔으며 해군이 발포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탈출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리비아 중앙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동부 주요 수출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말레이리 도난여권 소지자 이란인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11일(현지시간) 도난 여권을 소지한 탑승자 2명 가운데 1명이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던 이란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이커스튜디오는 6만개의 온라인 '체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임워너와 카날플레이 그리고 언론 재벌 루프트케미의 장녀인 엘리자베스 머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메이커스튜디오의 기업 가치는 최근 자금조달을 고려하면 3억 달러 정도라고 FT는 전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할리우드 경쟁업체들에 앞서 온라인비디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메이커스튜디오는 밀레니얼세대를 주고객으로 삼아 비디오를 생산하고 유통한다.

한달 평균 비디오 뷔스 55억 건에 달하고 있다. 밀레니얼은 지난 1982년부터 2002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메이커스튜디오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임워너와 카날플레이 그리고 언론 재벌 루프트케미의 장녀인 엘리자베스 머독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메이커스튜디오의 기업 가치는 최근 자금조달을 고려하면 3억 달러 정도라고 FT는 전했다.

디즈니는 그동안 할리우드 경쟁업체들에 앞서 온라인비디오시장에 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칼리드 청장은 나머지 1명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2년 사이 태국에서 도난당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인 여권을 이용해 말레이시아항공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테러 연루 의혹을 받았다.

수사당국은 그러나 여객기 납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도난 여권 소지자의 테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말레이시아항공 실종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조종사의 자살 비행설 등이 제기되는 등 무성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 이투데이 · 産業&amp;IT社 특약

## 中 정부 '반도체 육성' 팔 걷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집적회로(IC) 설계나 칩 제조, 고급 패키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1000억위안(약 17조37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현지 생산을 가속화해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울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측대로라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집적회로(IC) 설계나 칩 제조, 고급 패키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연간 1000억위안(약 17조37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IC 제조를 2011년의 261억개에서 2015년에는 653억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연평균 20% 성장하는 셈이다. 생산액은 702억위안에서 1440억위안으로 연평균 15.4%의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 내 IC 시장은 이를 웃도는 기세로 성장, 2015년에는 1조위안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배경에는 이 시장 규모와 자국산 칩 공급량의 격차를 메워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특히 IC 설계 업계에서 기대감이 크다. 중국의 IC 설계는 지난 2010년 매출 규모가 225억위안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약 750억위안으로 확대됐다. 3년 새 3배라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 2014년은 매출 규모에서 대만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 IC 설계가 급성장하고 있는 최대 요인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산화 흐름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베이스 밴드(BB), 모뎀 IC, 카메라 모듈용 CMOS 이미지 센서(CIS) 등이 이미 국산화돼 중국산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다.

팹리스 대기업인 스프레드트림은 중국 독자의 3G 통신 규격인 'TD-SC DMA'용으로 국산 BB 대부분을 공급해 성장했다. 2014년부터 본격 도입이 시작되는 4G(LTE)용으로도 IC를 공급한다. 이를 추격하는 업계 2위 RDA 마이크로로토로닉스도 설계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사는 2013년 중국 국영기업인 청화유니그룹에 인

## 한해 17조원 규모 예산 투입

## IC 설계 매출 세계 2위 눈앞

## 생산량 매년 20% 성장 목표

## AP·모뎀IC·CIS 등 국산화

## 3G·4G용 설계 개발 박차

## 자국 스마트폰에 탑재 계획

수혜 희망이 됐다. 청화유니그룹의 두 회사 인수 배경은 IC 설계기업을 인수해 됐다가 정부 지원책 발표 후 상장해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도체 제조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 28nm라인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SMIC의 베이징 B2 공장 등도 대상이 된다.

베이징 정부는 공장과 정보화부, 국가발전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IC 산업개발투자기금을 설립, 반도체 업계에 연간 300억위안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한다. 베이징 이외의 지역에서 계획된 보조금을 포함하면 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1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 패키지 분야에도 보조금이 편성될 것으로 예

상된다. CIS 팹리스 업체인 갤럭시코어와 슈퍼픽스 등은 800만과 500만 화소의 제품화 계획을 갖고 있다. 보급 가격대의 중국산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러한 수준의 CIS 제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이를 어떻게 해서든 국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4G 통신과 함께 2014년에는 이른바 '근거리 양방향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서비스의 본격 도입이 예상돼 있다. 이용자는 아직 적지만 작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대중교통기관에서 실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등 7개 은행은 2013년 12월 NFC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접촉형 IC 카드 기술 관련업체와 칩 조립, 전자 유도용 안테나 제조업체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4G 통신과 NFC 등에서 독자적인 표준 규격을 만들거나 해당 반도체도 국산화해왔다. 반도체 제조기술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는 뜻미치지만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수년은 여지가 있다. 중국 다음으로 유망한 시장은 인도와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이다. 이때 중국은 통신 규격,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을 세트로 스플레이체인까지 일관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반도체·전자기기 시장 성장 올해 정점 내년부터 내리막”

반도체 및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은 올해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제공업체 IHS글로벌에 따르면 2013년 전자기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9400억달러였다. 2012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한 반도체 시장은 2013년에 부활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3180억달러를 기록했다.

IHS는 향후 5년간 성장의 정점은 전자기기와 반도체 모두 2014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전자기기 시장은 4.2%, 반도체 시장은 5.8%로 전망됐다.

반면, 2015년 이후는 전자기기 시장과 반도체 시장 모두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는 선진국과 신증국에 국한하지 않고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전자기기 및 반도체 시장의 추세는 모두 기존 실리콘 사이클 및 올림픽 사이클과 같은 규칙성에서 벗어나 경기와 연동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IHS는 이 중요한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 이벤트, 전자기기의 제품 사이클 등에 좌우되지 않고 경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HS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전자기기 생산은 2012~2017년의 CAGR(연평균 성장률)에서 3.0%, 반도체 시장은 3.4%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2012~2013년에 걸쳐 TV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의 가전시장이 스마트폰에 잠식됐다. 이를 가전 제품 대에 일부 국가의 가전 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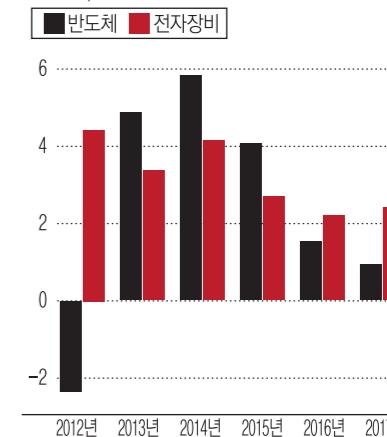
한편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트렌드에 힘입어 반도체 제품의 주목 분야에도 변화가 나오고 있다. 프로세서와 가전용 디바이스의 수요는 줄고, 과워 반도체와 MEMS, 센서 등의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 트렌드를 따라잡아 변화할지가 반도체 업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정리=배수경 기자 sue6870@

## 세계의 전자기기/반도체 시장 예측

단위: %, 전년비 성장률



전자 4.2% 반도체 5.8% 전망

불확실한 세계 경기 영향받아

스마트폰·가전용디바이스 줄고

차산업·파워반도체 등은 기대

자동차 산업 분야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앞지른 것이라고 IHS는 예상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시장을 내준 가전과 PC 등의 레거시 상품은 성장이 멈춰 2012~2017년의 CAGR은 마이너스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2012~2013년에 걸쳐 TV 시장은 침체되고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의 가전시장이 스마트폰에 잠식됐다. 이를 가전 제품 대에 일부 국가의 가전 시장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편 반도체 수요의 새로운 트렌드에 힘입어 반도체 제품의 주목 분야에도 변화가 나오고 있다. 프로세서와 가전용 디바이스의 수요는 줄고, 과워 반도체와 MEMS, 센서 등의 디바이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 트렌드를 따라잡아 변화할지가 반도체 업계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산교타임즈 기사는 이투데이와 제휴 협약에 의해 게재한 것으로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 “어떻게 창조적 자신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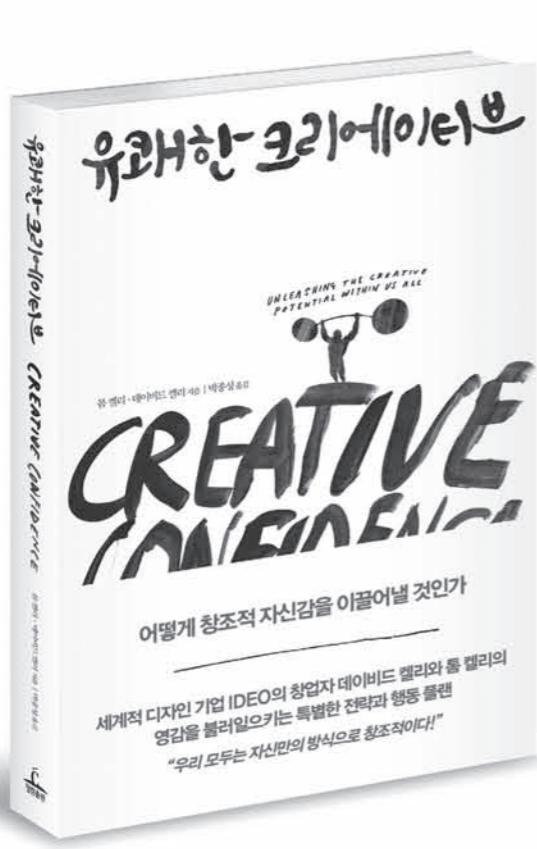
##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 창업자가 전하는 영감을 주는 전략과 행동 편

누구나 유치원 시절에는 창조적이었다. 실패, 판단, 시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창조와 혁신의 대가인 저자들은 IDEO와 스텝퍼드 대 디자인연구소인 d스쿨에서 경험한 혁신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안의 창조적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궁극적 해답을 보여 준다. 디자이너, 화가, 소설가 등 특별한 사람들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만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한다. 스스로가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전수하는 책.

##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톰 케리·데이비드 케리 저음 | 박종성 옮김 | 17,000원



데이비드 케리David Kelley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의 창업자이자 회장, 스텝퍼드 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자인연구소인 'd스쿨' d-school을 개설해 창조성과 디자인 사고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보잉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1978년에 IDEO를 공동 설립했다. 이후 애플 최초 컴퓨터 마우스와 세계 최초 노트북 컴퓨터 등 수많은 제품의 창조적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톰 케리Tom Kelley IDEO의 파트너로 창업자인 데이비드 케리의 동생이다. 베스트셀러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와 『아이노베이션』과 『아이노베이션』의 저자이기도 하다. HR 컨설팅회사 타워스파인과 제너럴일렉트릭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IDEO로 옮겨 마케팅, 경영개발, 스토리텔링 분야를 종횡하며 회사를 키워나갔으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TEL 02-546-4341 | FAX 02-546-8063 | www.chungrim.com 청림출판



# ‘주택바우처’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A씨는 소득 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지금까지는 6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24만원을 받게 된다.

# 경기지역의 2인 가구의 B씨는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로 10만원을 내면서 5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이 오는 10월부터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입법

국토부 10월부터… 4인가구 월소득 173만원 이하 해당

지급대상 24만가구 대폭 확대, 평균지급액도 3만원 더

임차료 3개월 연체땐 지급 중단…다른 목적 사용 차단

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과 통합한 것으로 법령 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현금급여기준선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증여소득 43%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급여가 시행됐으나 대상자수가 적고 대

(4인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의 경우 기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주거비 지원 수준 역시 기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80만원인 3인가구 매달 3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현재는 주거급여액이 6만원이지만 10월부터는 24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

상가구의 주거비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매달 20일에는 세를 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자가 집에서 사는 자가가구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수선해 주는 지원이 시행된다.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했다. 단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월세를 상환하면 지급 중단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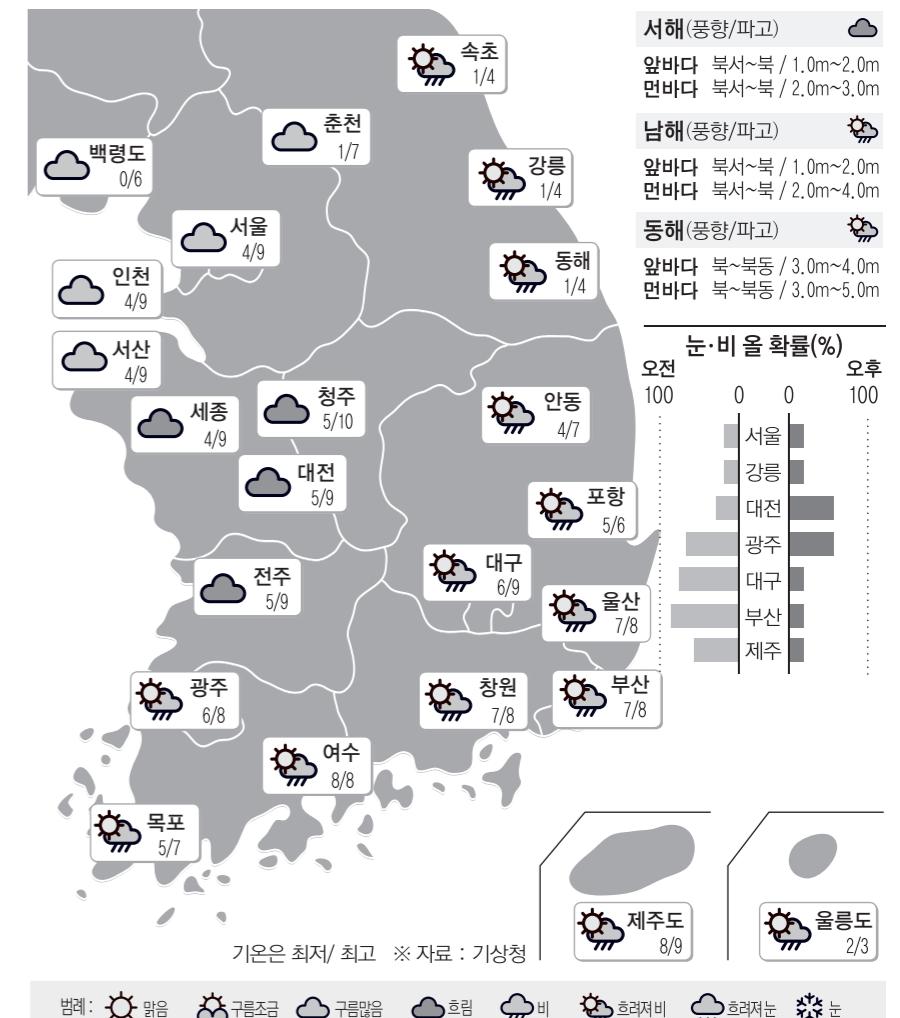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영관 기자 kwan@

## 내일의 날씨

3월 13일 ☀ 해뜸 06:47 해짐 18:37 ⚡ 달뜸 15:33 달짐 04:30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영서남부와 충청북도,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다. 또 충청남부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 도서 부내륙에서는 오후에 한두차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 서울시, 여성 비정규직 뒷짐만…다산콜 열악한 처우 여전

상담사 성희롱 대책 마련했지만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엔 한발빼  
인권위 “女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평균 월급도 113만원 최저 수준”

서울 여성 비정규직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졌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균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고용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20다산

콜센터 여성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한 민원인 6명을 경고처제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끊이지 않자, 시는 지난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후 적용한 첫 사례다.

하지만 시가 상담직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 종구에 위치한 시청 앞에서 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고용불안 등 처우개선 요구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시작 때부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2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박 시장은 취임 후 센터를 방문하거나 의견 수렴을 한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오히려 그동안 시의 입장은 ‘직접고용에서 처우개선’ 쪽으로 한 발 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 실시하는 삼화용역 투입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직원이 시정 업무

외에 길 찾기나, 분실물 신고 접수 등 기타 업무를 맡아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해 오는 4월 삼화용역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우리사회 냉대 여전하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 비율(37.2%)보다 월씬 높았다. 여성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 수준이며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진 기자 tippoo@

## 개인정보 1230만건 유통업자 등 18명 검거

### 이통사 등서 빼내 재가공 판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과 함께 맞춤형으로 제공까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가 적발한 불법 유통 개인정보 1230만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개인정보 가운데 423만건은 LG유플러스와 KT 등 이동통신 2사와 초고속 인터넷 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자 대리점에서 보관하다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최근 KT가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유출된 고객정보 1200만건과 다른 것이다.

또 시중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과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수백만 건의 정보가 쟁였다.

경찰이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추가로 수사해봐야 할 수 있지만 유통업자 문모(44)씨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집한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성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으로 가공해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권모(31)씨 등 17명에게 1000만~1100만원에 넘겼다.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추려 맞춤형으로 제공한 것이다.

분류한 직업군에는 판사와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가 정밀하게 가공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찰은 설명했다.

자격 미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부된 이른바 ‘부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건당 1원인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비싼 건당 1000원에 판매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대출과 물품판매 권리, 업체 홍보 등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 확인된 ‘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도 중요하지만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모(44)씨를 구속하고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태진 기자 tippoo@



### 올해 첫 연합학력평가

2014학년도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풍문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정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 168건 피해 인정

### 의심사례 361건 중 절반 확실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중 168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61건의 의심사례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으로 집계됐다.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망이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일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김시영 기자 kimsy@

### GS·대우 등 주요 건설사들 경력직 채용



#### 자격요건·입사 지원일 체크를

주요 건설사들이 경력직 채용에 나서고 있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경력직을 모집해 나섰다.

GS건설은 EPC(설계·조달·공사)사업 부문 경력사원을 뽑는다.

분야는 플랜트(지반) △플랜트(설계) △발전이며 16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플랜트 현장 경험자는 우대한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해외기지직을 모집한다.

모집직종은 △토공반장 △목공반장 △철근반장 △미장반장 △기계공반장 △TFT(설정·목수, 철로공 등)이며 20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리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동일토건이 경력직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시공 △설계 △공사 △자재·구매 등이며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리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이밖에 경남기업(19일까지), 우방건설(14일까지), 한빛건설(15일까지) 등도 채용을 진행중이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발전플랜

트 △토목 △품질 및 안전 △현장관리 △구매 등이며 입사지원은 17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 관련 경력 4년 이상, 관련업종 및 유관업종(정유, 가스, 중공업 등) 근무 경력자 등이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력자 및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현대차그룹 현대엔코파 PJT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현장관리이며 담당업무는 원가관리, 노무관리, 현장총무, 민원대응 등이다. 16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현장 경험자는 우대한다.

동일토건이 경력직을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시공 △설계 △공사 △자재·구매 등이며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리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이밖에 경남기업(19일까지), 우방건설(14일까지), 한빛건설(15일까지) 등도 채용을 진행중이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최효찬의  
명문가 자녀교육 따라잡기 퇴계 이황**

### 아들에게 편지 613통 '정신의 유산'

조선시대 명문가의 아버지 하면 대부분 뜻을 굽히지 않는 강직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물론 권위적이고 완고한 아버지도 있었을 테지만 조선시대 명문가 아버지들은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오히려 배려하고 섬세하게 돌보는 이른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소유한 인물들도 많았다. 퇴계는 요즘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소유한 인물로 평가된다. 퇴계가 40대에 한양에 머물면서 고향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동의 신발을 한손이 갈 때는 사 보내지 못하겠다. 한스럽다. 이번에 귀걸이는 함께 보낸다. 말린 꿩, 조개, 민물고기, 미역과 백지 한 권 등을 보낸다." 며느리에게 귀걸이와 참빗을 사 보내는 시아버지, 손자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목이다. 퇴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사람챙기는 본보기'를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이다. 퇴계는 주위 사람, 특히 자식 소홀해질 수 있는 가족부터 극진히 힘썼다. 선물은 자신이 단례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선물만 받았다. 받은 선물은 반드시 가족과 친인척뿐만 아니라 제자나 친구들에게 나눠 주었다.

**진**



퇴계는 열일곱 살 된 딸들에게 뜻이 돋독한 친구와 함께 절에 가서 굳은 결심으로 맹렬히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성인으로 추앙 받는 퇴계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요즘 부모들처럼 극성스러울 정도였다. "어제 너의 초사흘날의 편지를 보았다. 무사히 공부하고 있다니 위로가 된다. 지은 글이 등수에 들지 못한 것은 네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겠지만, 그려나 이것은 네가 평일 놀고 게을렀던 결과이니, 이것 또한 무엇을 나무라겠는가? 다만 마땅히 한층 더 공부에 힘써 진보할 것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스스로 자신을 잃고 봇을 쥐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은 1551년 순한살의 퇴계이이황이 아들 준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퇴계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학문에 뜻을 둔 착한 제자들과 '공부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김성일과 우성전이 지금 '계몽'을 읽으려 한다더구나. 너는 벌써 '주역'을 읽고 있지만 '계몽'도 읽지 않을 수 없으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곧장 절에서 나와서 이들과 함께 '계몽'을 읽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는 학문을 익힐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학문을 뜨는 것을 중시했다.

퇴계는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613통과 125통의 편지를 썼다. 세계적으로 퇴계만큼 자녀에게 편지를 많이 쓴 이가 있을까? 퇴계가 아들과 손자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는 금은 보화보다 더 고귀한 정신의 유산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퇴계는 자손들에게 '빛보증은 절대 서지 말고 또 이자놀이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 빛보증을 서거나 이자를 받는다면 인간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자녀경영연구소장

**손동영의  
CSR 이야기**

한국SR전략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청년창업, 시장경쟁을 이겨내는 방법

을 마친 200명 이상의 CEO를 배출해낸다. 정부가 최근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애심찬 계획을 발표한 이후 IT업체들도 자금, 사무실, 컨설팅 지원이 포함된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부족할 게 없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지원'이란 이름 아래 많은 걸 봤다.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은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이 춤출하게 짜놓은 그물망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혹은 소셜벤처, 중소기업을 꾸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은 여전히 창업보다 취업을 원한다. 창업이란 가시밭길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서 창업 성공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다. 실패의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확인한 팩트다.

창업지원센터마다 발표하는 성과들은 숫자로 가득하다. 몇 명의 CEO를 배출했고, 그들이 거둔 매출액이 얼마이며, 국제 대회에서 몇 번이나 수상했는지 등등 자랑 일색이다. 공공부문 담당자나 조직은 맡은 업무의 실적이 중요하고 그 근거를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도 창업교육을 받고 시장에 나간 이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인증이라도 얻은 창업 기업들은 지원 자체가 생존의 끈이 경우가 많다. '지원 없이 생존 없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갖춘 창업 지원시스템은 시장에서 경쟁을 뛰고 생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쟁우위의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회적기업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한 축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공 스토리는 내수 활성화로 경기불황을 돌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적기업이 창업자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들이 몇 개월 받은 기본 교육은 시장경쟁에서 도움이 안 되고, 지원의존형 타성을 쉽게 이겨내지 못한다. 결국 맨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희망의 단서는 일부 사회적기업들에서 발견된다. 사회혁신 기업을 표방하는 '히든 그레이스'의 김성은 대표는 '동성애에 의존하거나 단순노동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삶이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혁신공간 'There'의 정상훈 사무처장은 '사회 혁신가를 발견하고, 연결하고 돋는 게 목표다. 지금도 100여명의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발된 소셜벤처 OHFA테크의 이경황 대표는 8개월간 멘토와 심사위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언을 얻은 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경쟁을 이겨낼 창업자의 의지와 그들을 둘어주고 힘을 불어넣을 도우미가 만나 상승작용을 하는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는 중이다.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는 게 취업이라면 창업은 새로 판을 짠 일이다. 청년들이 창업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려면 경쟁우위를 보완해 줄 실질적 지원과 내실 있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하다.

온라인  
화글와글

교사 체벌 학생 22일만에 결국 숨져…“훈육 가장한 폭력”

○…담임교사의 체벌을 받은 뒤 13시간여 만에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던 학생이 사고 22일 만에 결국 숨졌다. 훈육으로 가장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네이션들은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뇌사에 빠뜨린 저 사람 교사 자격 없습니다.” “때릴 끗 때리지 말아야 할 끗 구분 못하는 선생들 아직도 많다.” “지각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애 인생을 망쳤나요”, “자식 젊은 부모는 어느 하늘을 보고 울어야 하니”, “전국 교실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제자가 쓰러졌는데 해당 학생이 조퇴했다고 출석부 조작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조사 들어오면 그날 조퇴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한 게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할 짓인가. 본인 밥그릇 지키겠다고 진실 왜곡하고 조작하는 인간이 학생들에게 인성, 미래, 교육 운운하는 게 말이 되니.” 라며 분노하고 있다.

○…결혼 축의금은 내 돈일까, 부모님의 돈일까? 하객들의 축의금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션들은 “서로 양보하면 될 걸. 과거엔 문제 되지 않았던 게 지속적인 불경기며 결혼 비용은 증가하고 집값은 오르니 조금씩이나마 돈을 쟁기려는 게 이런 논란을 부른 거다”, “만약 축의금으로 결혼식비를 충당하고 남은 축의금보다 식장 하객 음식값이 더 나왔을 경우 부모님이 부족한 금액을 책임지고 낸다. 그럼, 누구 건지 답이 나오지 않나”, “주객전도 누구를 위한 결혼식이고 무엇을 위한 결혼식인지 생각하자”, “결혼 할 때 부모님이 집 또는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면 축의금은 모두 부모님께 드리고, 아니면 각자 나누는 게 맞다”, “축의금은 당연히 부부의 돈이지”, “내 친구들이 내 돈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데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건가?” 라며 공방을 벌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① 애플 iOS 7.1 업데이트, 아이폰4 사용자 “가볍고 빨라져”
- ② ‘순천 고교생 사망’ 학교측 출석부 조작에 건강이상설까지
- ③ 비행기 실종, 남중국해 국제 항공 태러일까
- ④ “한-캐나다 FTA, 자동차업종 수혜”
- ⑤ 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

오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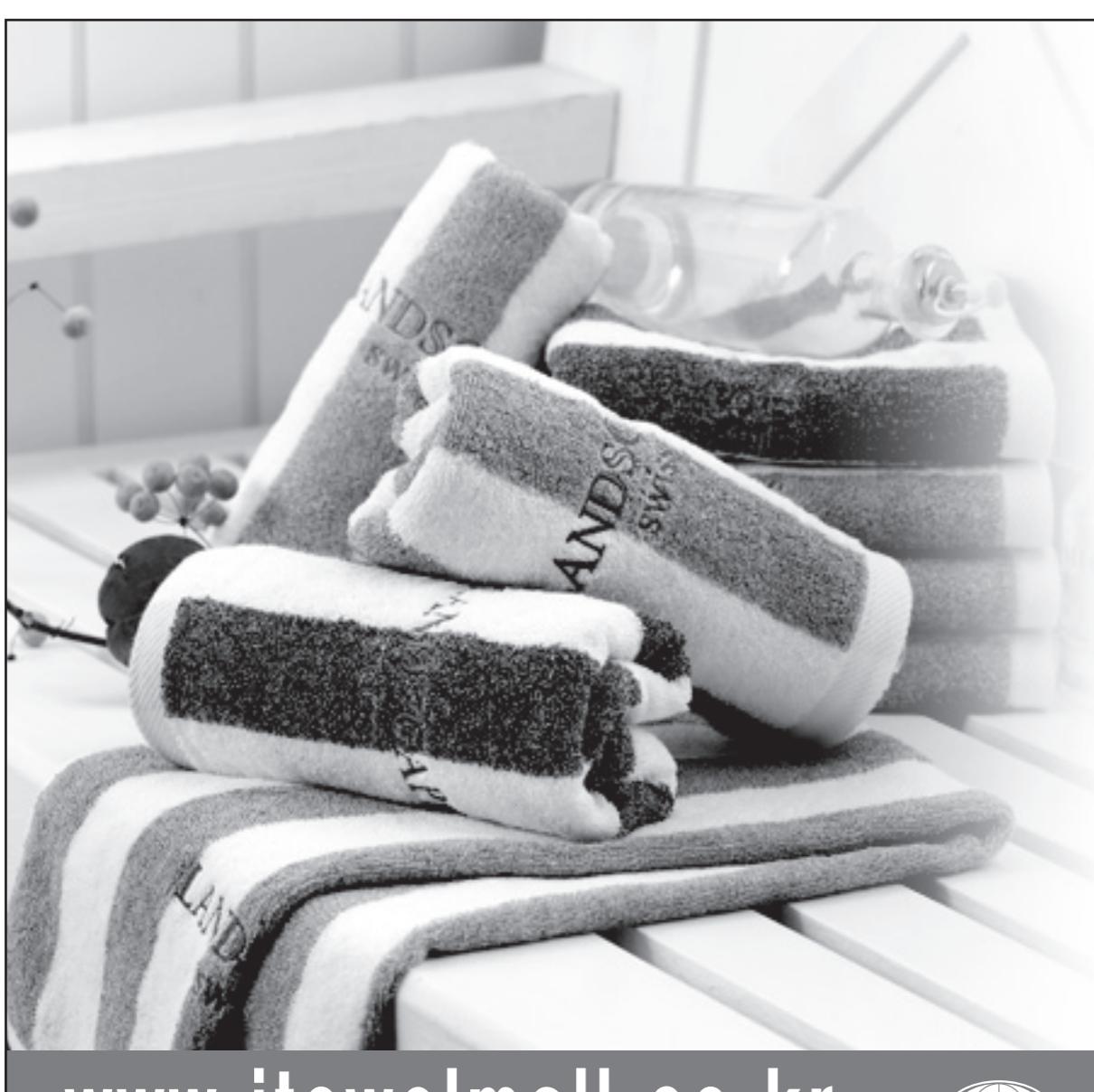
www.baekn.com

2년만에 방송 복귀하는 MC 주병진

배국남닷컴은 11일 '토크쇼의 황제' 주병진을 만났다. 2년 만에 방송에 복귀하는 주병진은 tvN 새 예능 프로그램 '근대가요사 방자전'의 MC로 나섰다. 주병진은 "오랜 만에 입하니 아직까지 어색한 분위기를 떨칠 수 없다.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두 가힘을 합해서 40-50대 시청자가 즐기고 공감하고 아름다웠던 주의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송 복귀 소감을 밝혔다. 주병진은 '근대가요사 방자전'에서 8090 방송, 가요계에서 활약했던 이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을 예정이다. 주병진은 "우리나라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40-50대가 즐길 수 있는 방송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그들의 기운 살리고 존재감을 알리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또, 주병진은 음악 토크쇼인 '근대가요사 방자전'을 통해 8090 준히트곡이나 숨은 명곡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병진은 시청률 지상주의를 포함한 최근 방송 제작 세태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가치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시청률만으로 정체성을 관가름한다. 이를 위해 전과 달리, 1시간 분량의 방송임에도 5시간씩 녹화해 편집한다. 최근 유행하는 다중 MC 체제에서는 남의 말을 끊어야 하거나 꺼내야 하거나 한다.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속도감과 성취감이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최근 방송 정서를 일갈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타올(주)**  
www.itawel.co.kr

매일  
타올로  
욕실 인테리어를 바꿔보세요!



[www.itowelmall.co.kr](http://www.itowe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 평가전 마치고 소속팀 복귀한 유럽파 입지는



맑음

흐림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그리스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브라질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인하는 마지막 A매치 데이에서 거둔 승리다.

이날 한국은 박주영(왓포드)과 손흥민(바이어 레버쿠젠)이 전후반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뒀다. 그리스전에는 이들을 비롯해 지동원,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선덜랜드),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05), 김보경(카디프 시티), 이정용(볼턴) 등 무려 9명의 유럽파가 자리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쳤다.

홍명보 감독은 부임 이후 줄곧 “소속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럽파의 현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진 않다.

우선 손흥민은 소속팀 레버쿠젠의 부진이 아

쉽다. 손흥민은 주말 하노버96과의 분데스리가 24라운드에 선발 출장했지만 팀은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는 득점하지 못했다. 비록 레버쿠젠은 공식 경기 연패를 5경기에서 끊었지만 그 역시 20라운드 이후 득점이 없다. 아스널을 떠나 잉글랜드 2부리그에 새롭게 둘지를 든 박주영 역시 부상으로 팀 전력에 전적으로 가세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이후 단 2경기에 출장했을 뿐이다. 그나마 그중 한 번은 후반 주가 시간에 투입됐다.

아우크스부르크 소속의 지동원과 홍정호 역시 활약은 그리 크지 않다. 전반기 내내 선덜랜드에서 단 5경기 출장에 그친 지동원은 후반기 아우크스부르크에 합류했지만 7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다. 선발 출장은 단 두 번이었고 지난 주말에도 교체로 출장했다. 홍정호 역시 기존 중앙 수비진에 밀려 올시즌 내내 11경기에 나왔을 뿐이다. 이 중 선발 출장은 기존 선수들

이 징계로 출장하지 못한 3경기뿐이다.

반면 박주호는 시즌 내내 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올시즌 이전 바젤에서 마인츠로 이적한 그는 팀이 치른 24경기 중 23경기에 출장했고 선발로 22번이나 나섰다. 특히 본연의 왼쪽 풀백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도 무난한 활약을 펼치며 토마스 투헬 감독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 투헬 감독은 그가 유일하게 부상으로 결장한 22라운드를 앞두고 “박주호의 결장은 큰 타격”이라고 언급한 뒤 “그가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뒤 결장한다면 그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한 신뢰를 나타냈다.

한편 이정용은 최근 교체로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고 김보경은 최근 두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하며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하지만 김보경과 기성용 등은 소속팀이 나란히 강등권에 속해 있어 어려운 시즌이 계속되고 있다.

차상업 기자 sycha@

봄 기지개 켜는 골퍼들

## 실속파 vs 품격파



노캐디제… 저렴한 그린피로 경쟁력 ‘업’

인천 드림파크·정선 에콜리안 10만원선

명품 코스·특급 서비스 등 ‘고가 마케팅’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 37만원 최고

그 밖에도 10만원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많다. 경남 김해의 가야CC 페블리크는 주중 8만원·주말 10만원, 경남 사천의 삼삼CC 페블리크는 주중 5만 5000원·주말 9만 5000원, 경기 파주와 남여주는 주중 최저 6만원·주말 12만 5000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그린피로 경쟁력을 확보한 골프장은 상관없다. 저렴하게 페블리크를 찾는 이유는 또 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코스 상대는 상관없다. 저렴하기만 해다오”라고 말하는 알뜰형 골퍼가 있는 반면 “돈은 상관없다. 코스·서비스만 좋다면”이라며 황제골프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봄은 세상 모든 골퍼의 천국이다.

그래도 대체는 저가 그린피를 앞세운 페블리크 골프장이다. 그만큼 저가 그린피를 원하는 골퍼들이 많다. 당초 회원제 골프장 개장을 목표로 했던 골프장이 대거 폐지로 전화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유승영 회원권114거래소 대표는 “전국 어디라도 골프장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은 필수화 됐다. 특히 골퍼들의 골프장 선택 기준은 그린피다. 주변 골프장과의 그린피를 비교해 비싸다고 판단되면 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 그린피 골프장은 경쟁력이 없다”고 전했다.

18홀 기준 가장 저렴한 그린피 골프장은 인천 서구의 드림파크 골프장이다. 주중 9만원, 주말 12만원으로 인천시민에게는 주중 5만원, 주말 10만원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정선·제천 골프장은 노캐디제를 도입해 만족도가 높다. 그린피는 주중 5만 8000원, 주말·휴일 7만 8000원이다. 전북 고창의 석정힐 골프장은 주중 6만~7만 5000원, 주말·휴일은 11만~12만 5000원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29일부터 프로야구 정규시즌…‘700만 고지’ 다시 오를지 관심  
간판급 해외진출 불안 요소…외인 타자 재등장 흥행 기대감도

2014년 대체로 700만 관중을 기록한 프로야구는 전년 대비 126만 347명의 관중이 줄어 무려 32.4%의 감소세를 보였다.

물론 관객 동원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 8일 광주시에 정식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다. 새 구장은 2만 2244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존 광주무등경기장(1만 3000석)의 1.7배 규모다. 신명철 스포츠평론가는 “KIA의 성적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관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더불어 원정경기에서도 과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타자의 재등장도 호재다. 블루스카트(SK 와이번스), 호르헤 칸투(두산 베어스)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타격전 위주의 호쾌한 경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많은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신명철 평론가는 “리그로서 프로야구는 이미 2010년 자리 잡았고”고 전제하며 “자생력을 가진 프로야구가 월드컵이나 국외 리그에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해외 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야구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국내 프로야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별 기자 byul0104@

## 2014 브레이크 등산화 3월 출시!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2014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멀티 스파이크 아웃솔은 산행 스타일에 따라 전면부에 형성된 스파이크 4개를 교체하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렌치 + 스파이크 증정)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기념 사은 이벤트: 잔디로닷컴(www.jandiro.com)에서 브레이크 등산화 할인쿠폰을 신청하세요]

2014  
NEW잔디로 다기능 레저화 JM2411  
색상: 검정색, 진한색 판매가: ₩ 168,000원

잔디로 대리점 모집 02)6909-8851 / 골프 & 등산 의류, 용품 매장을 전개할 대리점주를 모십니다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6909-8834 | 본점: 02)2608-7400  
●전주점: 063)276-5000 ●광주점: 062)351-9000 ●A/S센터: 02)542-2000

JANDIRO  
SPORTS

# Money today

19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 ‘진짜 금융맨’은 어떻게 단련 되었는가

### Cover Story

#### 금융권 신입사원 연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후한 복지 혜택으로 금융권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이런 까닭에 은행권 입사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합격률이 100:1이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하반기 100명을 채용한 하나은행의 공채에 무려 1만3400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134대 1에 달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심지어 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경쟁률도 최고 30대 1을 넘는다.

100:1 합격은 시작일뿐 고강도 지옥연수 통과해야 진짜 입사  
단체기합·철야행군 등은 기본 주인의식·애사심·동기애 키워  
엄격한 조직문화로 전문성·도덕성 함양 금융사고 예방 교육



이처럼 힘들게 입사하지만 신입사원들은 강도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마쳐야 비로서 정식 발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5주에서 10주로 구성된 신입직원 연수프로그램은 금융업 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강도 높게 교육받게 된다.

또 일반기업의 신입직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체기합, 철야행군, 극기훈련 등은 기본소양 교육 중의 하나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군대를 경험하고 싶다면 은행에 취직해라”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최근 신한은행 신입행원 연수 과정을 담은 영상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신입행원들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기마자세로 서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인정신’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텁텁한 흙을 흘리는 장면이었다. 울음을 터뜨리고 구토를 하는 일 부 직원의 모습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과거 신한은행에서 홍보용으로 직접 제작해 올린 것이 일부분이다.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인의식’은 한 사람만 일탈을 해도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권에서 중요시하는 교육 중 하나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에서 한발 비껴 있는 신한은행은 신한만의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입사 10년차인 신한은행 한 직원은 “도육적인 상황이 아니다. 아침 구보와 천리행군에 비유가는 고강도 체력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신한맨’으로 태어나는 기분이 든다”며 자신있게 말한다.

신한은행 신입직원 연수 프로그램은 통상 11월 중순부터 지점에 배치되는 2월 초까지 지주사 공동 연수 2주를 시작으로 은행 자체 연수 9주를 합해 총 11주간 합숙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으로 강도 높기로 유명하다.

이른바 ‘방아리반’으로 불리는 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

고 있는 기업은행 역시 빠빠하기로 유명하다. 신입 행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연수에 돌입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외환은행은 신입행원 연수의 마지막을 50km 야간행군으로 마무리한다. 매년 외환은행 신입행원들은 무박 2일 동안 잠실운동장, 반포대교, 명동을 거쳐 외환은행 본점까지 약 50km 야간행군을 실시한다. 다른 은행들 역시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강도 높은 신입사원 연수를 하는 이유는 뭘까?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은행만이 가진 조직문화가 이를 대변한다. 무엇보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권이다. 신입행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어느 업종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또한 주인의식과 애사심, 동기애를 키워 어렵게 키운 인재가 중도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은행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인력 개발 방향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텔레, 대출, 외환 등 자신의 분야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어느 분야를 맡겨도 처리할 수 있는 복합금융인 육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은행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누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에 신입직원 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보험권과 카드업계의 신입직원 교육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신입직원 자기역량 강화와 함께 현장 영업 경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나열식 스펙인재보다는 현장 중심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도에서다.

안철우 기자 acw@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 직급별 직무과정 의무이수… 자격증 취득 ‘주경야독’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0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행원 연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 은행, 교육 어떻게

### 국민銀, 500개 직무 선별 학습 스터디그룹 활동 시험 보기도

### 우리銀, 연수 프로그램 300개 마케팅·리더십 등 사이버 교육

### 하나銀, 애티튜드 교육에 초점 기업銀, CEO와 대화 진행도

국민은행의 신입행원 교육은 직무 전문가 육성, 조직가치 공유 강화, 글로벌 인재 육성, 우수 인재 양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체계적·상시적 교육 프로그램이 국민은행 직원 교육의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전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경력 개발 계획별 연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은행들은 새내기 직원들을 향후 회사를 이끌어 갈 인재로 기우기 위해 신입행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신입사원들의 직무 능력 부터 올바른 인성까지 전 부분에 걸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사한 만큼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및 실무는 물론 본인의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입행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총 8주간의 신입행원 연수 프로그램 중 60~70시간은 애티튜드 교육을, 180시간은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기간 중 신입직원들은 고객 서비스(CS), 조직 생활의 이해, 야외 행동 훈련, 뮤지컬 관람 등을 통해 문화 은행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한다. 또한 텁텁링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동료애를 고취한다.

은행인으로서의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지식 습득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수신·여신·외환 관련 이론과 고객 상담을 위한 상품의 이해, 풀 플레임, 전신 실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운다.

신입행원 초기 조기 전략화 및 조직 적응을 위해 1년간 신입직원 집중 캐어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신입행원 연수인 스타트업(8주), 현업 배치 1개월 후 베이비 걸연식 및 베이비 활동(3개월), 3개월 시점 스피드업(3박4일), 리턴 여행, 통신 연수(재무제표, 기업회계 등), 자격증 취득 지원, 1년 시점 행원 로드맵 조기과정, 글로벌 어학점수 취득 등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직원이 은행 생활과 직무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뿐 아니라 실무 능력 배양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신입행원 연수는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속한 회사의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주간 이뤄지는 합숙 연수기간 동안 신입직원들은 CEO와의 대화에서 행장의 경영 철학과 은행의 경영이념 및 목표를 체화한다. 기업은행의 일원이 된 만큼 은행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지 물소 느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과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수신·여신·외환 등 직무 기초, 전산·창구 RP 실습, 영업 실적 교육 등의 직무 교육과 함께 영업점 현장 학습 등을 통해 신입직원들이 은행의 기본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김지영 기자 gutiy@

**스마트폰의 보안 업그레이드**  
**바이로봇 Mobile for Android**

바이로봇 모바일 1.0은 안드로이드(Android) OS 지원 토탈 보안 솔루션으로 안전성 검사, 스팸 차단, 네트워크 감시 및 도난방지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바일용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신제품 출시**

**도난방지 기능**

- 폰 분실이나 도난시 원격 잠금/삭제 기능
- SIM 카드 변경시 잠금 기능
- 파일 및 디렉토리 단위 파일암호화
- SDCard 영역에 대한 파일브리우저 기능
- 프로그램 실행시 인증 기능

**안전성검사 기능**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등 악성 코드 차단
- 행위기반 위험 애플리케이션 차단 및 취약환경 점검
- 업데이트 기능

**네트워크감시 기능**

- Wi-Fi의 AP(Access Point) 접근제어
- 3G망의 데이터 통신량 감시 및 차단

**스팸차단 기능**

- SMS에 대한 번호 및 텍스트 기반 차단
- white list/black list를 이용한 전화 발신/수신 차단

내기들의 조기 적응을 돋우고 있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행군을 떠나는 곳도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행원 84명이 경기도 신갈에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까지 50km 걷는 야간행군을 실시했다. 윤용로 은행장을 비롯한 19명의 전 임원과 노조간부들은 반포대교 남단~을지로 본점에 이르는 약 8km를 동행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폭우로 한 걸음, 한 걸음 때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응원의 말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며 전원 완주에 성공했다.

경남은행 역시 지난해 하반기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무박 2일 행군을 실시했다. 50km 구간을 체험학습·게임트레이닝·신념화 교육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12시간여 만에 완주했다.

입행식에 부모님을 초대하는 부산은행도 이색적이다. 신입행원들을 단순 조직원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임직원들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장(場)을 마련하는 하나은행의 노력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하나은행의 ‘하나 톡톡’은 은행장과 직원들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은행장이 단순 CEO가 아닌 동료, 선배로서 경험과 철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신입사원 이탈 막아라

### ‘멘토링’ 통해 선후배간에 정 쌓고

### 입행식 부모님 초대 소속감 키워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은행’에 입사했다. 좁은 취업문을 뚫고 ‘신의 직장’에 취업했다는 주변의 부러움이 쏟아졌지만 막상 입사하고 나니 고민이 많았다. 생각보다 애근이 찾았고 영업 압박도 커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항상 고객에게 미소로 일관해야 하는 일도 힘들었다. 결국 A씨는 주변의 민류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퇴사했다.

### 멘토·멘티 정해 업무지식 전수 행군 떠나 유대관계도 만들어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응시키고 인재로 육성하는 체계 이후 인사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끈끈한 조직문화는 이직률을 낮추고 탄탄한 팀워크는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멘토링, 최고경영자(CEO)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내기들의 조기 적응을 돋우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멘토링이다. 멘토링이란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멘토)이 조직 구성원(멘티)을 1:1로 전담해 지도·코치·조언함으로써 그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신입행원이 지점에 배치되면 실정에 맞게 멘토 적임직원을 배치한다. 멘토는 1년간 멘티에게 업무지식을 전수하고 신입행원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우리언니’, ‘벗바리제도’ 등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

# ‘보험사답게’… 생명 소중함·현장업무 동시에 익히기

## 보험·카드업계 교육은

보험사와 카드사의 신입사원 교육은 자기 역량 강화와 현장업무 경험을 동시에 진행한다. 단순한 나열식 스펙 인재보다는 현장 중심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금융권 특성상 현장에서 많은 자금이 움직이다 보니,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어느 곳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소양교육에서부터 한계 극복 프로그램까지 길게는 반년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참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삼성생명 신입사원들은 그룹 교육 이후 약 3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와 각 부문별 조직에 대한 이해, 생명보험업의 개념, 회사 대표상품, 기본적 판매 단계에 대해 배운다. 특히 삼성생명은 올해부터 신입사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포함시켰다. 보험업에 걸맞게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겠다는 뜻이다.

교보생명은 입사가 확정되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중 연수원 소집 교육, 본사 업무 OJT(직장내 교육·훈련)가 실시된다.

한화생명은 입사 후 6개월 동안 각종 소양교육, 업무 역량 개발, New Change Leader 프로그램, 영업 현장 체험, H-PDS 프로그램, 현업 프로젝트 수행, 해외 벤처에 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된 H-CTP 과정을 수료한다. 이 과정은 신입사원의 전문성, 창의성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삼성화재는 신입사원 교육을 콜센터 방문으로 시작한다. 고객이 최우선임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고객체험 후기를 바탕으로 콘트를 하기도 한다. 특히 삼성화재는 글로벌 손보사로서 도약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신입사원의 입문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신입사원 첫 관문은 7주간의 합숙 및 짐 학교이다. 이후 각 보상서비스센터와 지점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한다.

동부화재의 신입사원 교육은 부서 적응과 조기 전

력화를 위해 직무교육 위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 직무 기초지식 학습을 통해 업무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이 동부화재의 설명이다.

LIG손해보험 신입사원 연수교육명은 ‘LIG Running STAR’다. 경기도 수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LIG손해보험의 연수시설 ‘LIG인재나눔’에서 4~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LIG손보는 계절과 상관없이 2박3일에 걸쳐 지리산·한라산 등을 찾아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도전과 끈기 그리고 동기애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내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카드사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 곳이 많지 않지만 일부 체용한 카드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의 인재경영은 신입사원 채용에서부터 차별화된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기존에 해 오던 일반전형의 채용 방식 외에 새로운 채용 제도인 ‘스페셜 트랙’을 도입했다. 학점이나 어학성적, 공모전 수상 경력, 인턴 경험과 같은 이른바 스펙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신만의 색깔과 특기를 가진 지원자를 뽑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신입사원들은 ‘잡 셀링(Job Selling)’과 ‘잡 페어(Job Fair)’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잡 셀링은 사내 각 부서 임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기 조직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은 어떤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은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펼칠 수 있는지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잡 셀링 기간이 끝나면 사내 채용 박람회 형태의 잡 페어가 진행된다. 신입사원들은 관심 부스를 찾아가 해당 부서가 원하는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한편 본인의 강점과 특징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씨카드는 신입사원의 교육 몰입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각 분야별로 부서장들이 직접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콜센터 고객 응대를 필수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후 각 부서 배치 후 3개월간의 OJT 기간 동안 조지생활 전반에 걸친 멘토링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이재현·김구귀 기자 nts0118@

## 삼성생명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삼성화재·현대해상·비씨카드는 콜센터 실습 ‘고객 최우선주의’

##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인재경영

‘잡 셀링’ 조직 역할·비전 이해  
‘잡 페어’ 적성에 맞는 직무선택



### 보험·카드사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

삼성생명 기본 개념 및 심폐소생술  
교보생명 본사 및 현장 교육  
현화생명 H-CTP 과정

LIG손보 LIG Running STAR(등산 등)  
삼성화재 콜센터 방문·영어 진행  
현대해상 보상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실습  
현대카드 잡셀링·잡페어 프로그램 차별화  
비씨카드 참여형 프로그램과 멘토링 교육

## 금융사 교육담당자가 말하는 트렌드 변화

### 이론보다 ‘실무’, 정형보다 ‘개성’

KB국민銀 실전적 직무 수행 강조  
동양생명은 창의성·팀워크 강화 등  
과거 조직 충성 위주 획일화 벗어나

금융사 신입직원 교육담당자들은 최근 신입직원 교육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주입식 지식 전달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 역량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 개인의 창의성 존중도 금융권 신입직원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으로 꼽았다.

우리은행 인재개발부 신입원행 교육담당자는 “과거에는 조직 충성 강화를 위한 교육 비중이 높았고, 조직에 순응하는 직원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영업 점 배치 후 비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재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차장은 “최근 신입행원들은 영업점 첫 출근과 동시에 고객 상담 업무에 바로 투입된다”며 “신입행원에게 장기간의 업무 적응 기간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입원행 교육 방식 역시 영업점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실전적 직무 수행 역량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다양한 고객상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필수실무과제 100선’을 숙지하게 한 후 영업점 창구와 동일한 환경에서 고객 응대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신입직원 교육에서 창의성, 협동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동양생명 HRD파트 교육담당자는 “과거 신입원행 교육은 윤리적 자세와 금융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진영·신태현 기자 min@

HYUNDAI MnSOFT

softman  
soft, beyond smart



국내 최다 200만개 단어인식, 국내 최고 음성인식률!  
New 소프트맨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필요없을 만큼 편리한 내비게이션



설명서가 필요없는 쉬운 사용성  
소프트맨 S571



편리하고 안전한 음성인식 결로 탐색  
소프트맨 S571V



8인치 대형 화면의 우수한 시인성  
소프트맨 S581V



매립 전용 9인치 최고급 프리미엄 품질  
소프트맨 S591V





# 저축은행 '서민금융' 재도약, 투자시장에 담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총 27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구조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신뢰도가 추락한 저축은행 업계가 느끼는 체감도 아직 영향이다. 업계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악화돼 사실상 존폐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량고객은 시중은행에 빠았기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5등급 이하 신용대출 수요는 대부업체에게 다 빠았겨 더 이상 먹거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커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위험 자산운용에 치중해 서민·중소기업 등 고유의 영업기반을 상실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 저축은행 위기 원인은 '외형 부풀리기' = 저축은행 부실은 근본적으로 초래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높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자금 운용의 적정한 수익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외환 위기 이후 안정된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해 고금리 수신 정책으로 외형을 부풀려왔다.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급속히 불어났다.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수신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문제는 관리 능력에 비해 외형 자산이 너무 빨리 늘어난 점이다. 자금 운용 측면에서 당시 호황을 보인 부동산 관련 고위험 기업 대출에 집중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본연의 일부인 서민 신용대출 규모는 줄어들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출을 집중 시킨 상황에서 금융환경이 불안해지자 저축은행은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을 이용하기 곤란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담보대출과 같이 지역에 밀착해 저축은행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자산을 다 운용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 떼일지 안 떼일지 모르는, 부실 위험이 높은 곳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당치는 무조건 키우기보다 자산 규모를 적절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계형 금융' 활성화 먼저 = 최근 서민들의 생계형·무담보 신용대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금리 수준의 신용대출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다양한 서민우대금융 제도를 통해 여신시장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 위험도가 높아 신용평가시스템과 위험관리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한계를 지닌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및 사후 모니터링이 부실한 곳이 대부분이고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 운영도 취약하다.

업계는 강화된 건전성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끌리게 되고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이 없어 연체율이 높은 서민 소액대출을 기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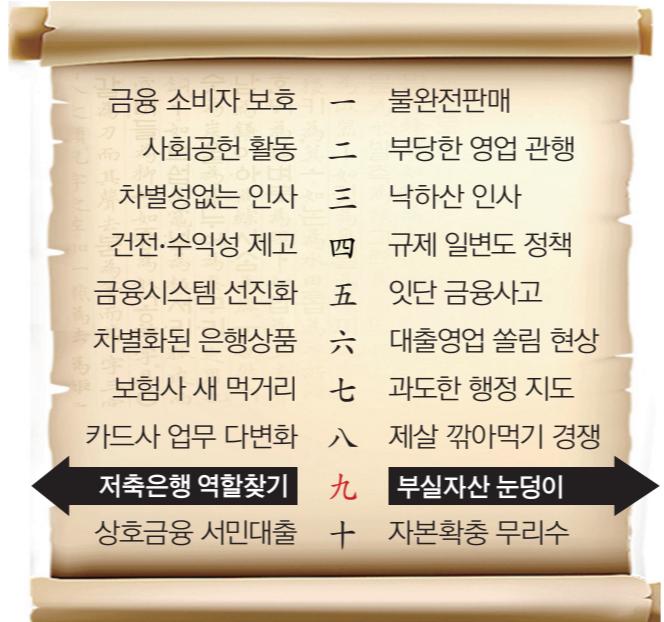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저신용 서민에 대한 안정적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와 사후적인 신용위험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영성과가 우수한 저축은행들은 임직원이 인근 지역내 고객 및 담보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시 파악해 여신 심사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여신 부실화에 조기 대응하는 등 자발적으로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저축은행이 먹고 살 길은 자산 2000억원 안팎으로 본점과 지점 하나 정도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하는 것"이라면서 "은행도 카드사도 근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수요가 있으므로 건실하게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국금융 DNA를 바꾸자

10活10廢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23 Money

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여신 관행에 크게 기인했다. 하지만 지금도 부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건전성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도 감독기관과 업계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저축은행 '부실자산' 해소 속제 = 업계의 자구노력을 따라 건전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의 21.8%에 달한다. 이는 다른 업권 평균인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신용합동조합(5.2%)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2.5%)보다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 비율을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해 반년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매년 반기마다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야 하며 20% 이하인 저축은행은 최소한 1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에 해당한다.

PF 대출 부실채권은 오는 2016년 12월까지 의무 여신 비율의 위반 여부, PF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자체 감축 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주로 부실채권(NPL) 투자나 대부업체 대출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전년(6924억원) 대비 51.9% 증가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조5431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29조원)의 5%가 넘었고,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총 여신 대비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금융하는 수익성, 경쟁력 회복 필요 = 구조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업계 관행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은 체질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부동산 PF 매각 등에 따른 손실처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역시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손실 폭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적자 역시 여전하다. 2013회계연도 1분기(7~9월) 중 저축은행 업권(91개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12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49억원 줄어든 것이다. 당기순손실 발생 주요 원인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여신의 대손 비용 발생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도 많은 저축은행이 PF 대출 충당금 적립 등 부실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91개 저축은행 중 적자 저축은행 수는 36개사였다.

저축은행 업계가 획기적인 고금리 적용 대출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도에 따른 중금리 개인신용 대출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관계형 영업 강화를 통해 장기 안정적 여신거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체 경쟁력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여신업무 신진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 공동의 표준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규모가 미미한 20%대 중금리 상품으로 서민금융의 투자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주요 고객층이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면 고객층도 전체 고객의 13.9%에서 25.3%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 평범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 부자 공부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시작하라

####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이 커지면 돈은 제 발로 들어온다

평생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한 당신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돈이란 월급받아 일들하게 저축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대학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 따르는 부자에게 배워라. 그러나 부자가 가르쳐주지 않거든 이 책에서 배워라.

- 맨손으로 1000억 번 부자들의 공통점을 분석 통찰한 책 \_머니투데이
-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돈과 부자'에 대해 공부했는지가 결정한다 \_한국경제

#### 1% 부자들의 탈무드 실천법



- 부자의 줄에 서라
  - 이웃에게 밥을 사라
  - 지혜를 먼저 구하라
  - 돈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마라
  - 이익의 절반을 가지려면 사업을 시작하라
  - 신용이 최고의 화폐다
- 유대인의 비즈니스는 침대에서 시작된다  
테시마 유로 지음·한양실 옮김 | 272쪽 | 값 13,500원

지금 시작하는 부자 공부 권성희 저술 | 324쪽 | 값 15,000원



화제의  
신간

# 직원들이 초·중·고 직접 찾아 경제교육 진행 '지식나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직원·대학생 예비무역인 양성 무상교육

농촌지역 결연 맺어 일손 돋고 특산품도 구매

최대 10만달러 수출대금 보상 中企단체보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과 공생경영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사회공헌 슬로건인 '기업에겐 수출을, 이웃에겐 따뜻함을'에서처럼 고객인 기업과 이웃 모두가 나눔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무보는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은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기 위해 2월부터 사회공헌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원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해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보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 △업무 특성에 맞는 지식나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사회적 신뢰구축 등으로 세분화돼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사회공헌 선도 = 무보는 도농 간의 교류를 위해 농촌지역과 결연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충남 아산 의식리, 2012년부터는 경기 파주시 캐리리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직원들이 농촌지역에 가서 부족한 일손을 돋고 있다.

매년 종삼작업에 무보 직원들이 참여해오고 있으며,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경작한 수확물을 수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도 실시해 작지만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임직원들이 인삼과 장단콩 등 지역 특산품을 직접 구매토록 지원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전통적인 문화재가 많은 종로구의 지역특성을 감안, 인사동 북촌 환경정비, 성균관 문묘 정비 활동 등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의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쪽방촌 화재점검, 사랑의 연탄 배달활동을 매년 겨울 정기적으로 실시, 지역주민들과 공존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 소재한 라파엘의 집, 데레사의 집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난 8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식나눔 사업은 무보만의 사랑이다. 세부적으로는 2006년 6월 JA Korea와 협약을 체결한 뒤 공사 직원들이 초·중·고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경제지식을 교육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무보는 무역보험 아카데미를 통해 연수비용과 연수 기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직원, 대학생 등 예비무역인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제도에 대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무보가 후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는 등 개인시간을 조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서민안정 위한 중企지원 박차 = 1992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의 무역보험제도를 전달하고 있는 무보에게 기업들의 수출촉진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다. 또한 무보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보의 대표적인 지원책은 '중소 Plus+ 단체보험'이다. 단체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 미화 10만 달러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상한다.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개별 수출기업을 대신해 무역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무보는 이에 대해 지난해 31개의 기관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현재 총 5353개의 중소·중견기업이 6조원의 무역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수출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차별화된 맞춤형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당 단계에서 착실히 성장한 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수출경험 등이 부족하여 금융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러 우량기업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최장 18년간 △최대 100억원 범위 내 보증비율 100%인 수출자금 보증서 발급 △수출대금 미회수 보상한도 최대 3배 우대 △보험(보증)료 최대 70% 할인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30건 무료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 우대를 받게 된다. 이율려 수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준비→판로개척→수출이행→체권관리까지 수출 전 단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

무보는 현재까지 총 214개 기업을 글로벌 성장사다리 회원사로 선정했으며 작년 한해 동안 회원사에게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했다. 또한 이후에도 매년 30~40개의 신규 회원사를 선정해 2017년까지 총 300개사의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보는 영세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수출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등 무역보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크게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 “무역보험 통한 양질의 일자리, 진정한 사회 기여”

### 사회공헌 정보시스템 구축

### 직원들이 선택 자율적 참여

‘현장경영’은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따라 다니는 수식어가 되었다. 이같은 현장 중심 경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의 핵심이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찾아가는 '발로 뛰는 진정한 나눔과 상생의 사회공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최근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젊은 직원들이 서로 자신이 걸리질을 하겠다면서 기회를 양보하지 않더라도 미답을 전하면서 ‘봉사 활동으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함으로써 돌려받는 행복이 더 크다’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가치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청소년 보육시설 지원과 인사동~북촌간 환경정비 및 성균관 문묘가 꾸기 등 기존 봉사활동 외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이해와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행사 개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김 사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란 직원들의 귀띔이다.

또한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관리 프로그램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직원 스스로 원하는 봉사활동을 쉽게 선택해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무보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기여이며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꾸준히 확장해나가고 있다.

때문에 김 사장의 취임 이후 현장 중심 경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전파하는 무보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앞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FR-300) : ₩3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FR-500) : ₩4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000세트  
한정판매!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경량 애정 가공 중 면날(ma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로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자동 진입 조절 · 충전 전행방태 · 원충전 표시 LED 램프 · 콕시엠이나 구렛나루 엣케이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원형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 /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리시/AC04필터/사용설명서/배터리 N-M전자포장입 2개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원 스위치의 오직동 방식 Lock버튼 부착 · 독립 플로팅 3중날 시스템 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衛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로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사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충전 전행방태 · 원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콕시엠이나 구렛나루 엣케이를 위한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원형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 /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리시/AC04필터/사용설명서/배터리 N-M전자포장입 2개

### 다기능 코얼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 ₩17,000

₩17,000

제품특징 : 생활 방수 기능으로 물 세척 가능 · 접기 편한 물걸레형 기관 · 금박트리 세척기 출입 외전용 최적 · 면도날 담개로 면도날 보호 · 청소하기 편리한 슬립 청소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 · 정교한 커팅을 구현하는 일제 cutter ·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날개와 망구조

제품사양 : 건전지 사용식 · 15V AA 사이즈 · 130.5×28×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일 1회 3분 사용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래풀 | 대표 : 최병철 | 서울 중구 정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 113호



**여름휴가 대신 집짓기 자원봉사  
무주택 27세대 '희망의 보금자리'**

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성·독창성·직원들의 참여' 이 세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씨티 가족 희망의 집짓기 프로그램이나 국내 유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은 지속성과 독창성을 모두 담고 있는 대표적 활동으로 꼽힌다. 여기에 행장 및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다. 씨티은행은 '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자사 비전처럼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는 분야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전 임직원 참여 해비타트 봉사 = 씨티은행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해비타트 자원봉사'다. 씨티은행은 지난 1998년 한국 기업 최초로 한국해비타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16년간 총 1100여명의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광양·삼척·대구·군산·태백·춘천·대전·인제 등에 총 27세대의 희망의 집을 지었다.

그동안 씨티재단(Citi Foundation)과 씨티은행이 건축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21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씨티재단 후원금 21만4000달러를 비롯해 씨티은행 후원금 1억 원 등 총 3억4400만원 가량을 희망의 집짓기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씨티은행은 땀 흘리는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휴가철인 매년 7~8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 휴가를 사용해 참여하고 있다. 최대 참여자인 하

전 임직원 해비타트 참여... 16년째 구슬땀  
'지속성·독창성·직원 참여' 사회공헌 3원칙  
홈파트너 경제교육 통해 맞춤 재무설계 제공  
NGO 인턴십 선발 대학생 785명 실무 체험

영구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희망과 참여 속에 집짓기 봉사활동은 씨티은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하영구 행장을 포함한 10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춘천 지역 사랑의 집짓기 활동에 참여해 2세대의 집을 지었다.

씨티은행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홈파트너 경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무주택자(예비 홈파트너)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소비와 지출을 관리하고 내집 마련의 첫걸음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홈파트너 경제교육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돋기 위해 합리적 가정경제를 위한 기본이론 교육부터 1대1 맞춤식 재무설계까지 건강한 가정경제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만 전안·아산·춘천·군산·양평 지역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홈파트너가 이 과정을 수료했다.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눈길 =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난 2006년 경희대와 함께 시민사회 발전과 차세대 NGO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민사회 리더 양성

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 활동은 전국 주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NGO 단체에서 인턴십 참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NGO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방학기간 동안 경험 획득이나 NGO 단체에 단기적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NGO의 발전 및 차세대 NGO를 이끌 젊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총 78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의 인턴으로 선발되고 전국에 위치한 75곳의 NGO 단체에 배치됐다. 이들은 8주간의 활동을 통해 NGO 활동과 운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접할 수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고양을 취지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인턴기간 급여와 수료증이 수여된다. 활동기간 중 하루를 '나눔의 날'로 정하고 인턴들이 직접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 연탄 1만2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씨티은행은 해비타트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생각, 다른 미래'라는 씨티은행의 비전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지원되지 않는 분야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새터민으로 확대**

씨티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다문화·글로벌·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금융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긍정적 변화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씨티은행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함양하고 스텝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씽크머니' 교육과정이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은 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 8년 동안 긴사교육을 받은 543명의 씨티은행 직원과 1022명의 YWCA 강사를 통해 35만6000여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했다. 현재 청소년 외에 다문화 이주여성을 포함한 학부모들과 새터민 등 보다 많은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씽크머니는 학년별 수준과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 자체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금융 교육 표준안과 6년간 전국에서 실시한 씽크머니 현장교육을 통해 측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재를 전면 개정,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씽크머니 금융교실' 교재 2종이 서울시 교육감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아 출판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또 2011년부터 다문화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씨티-JA 히어로 프로그램(Hero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습지도 봉사자와 씨티은행 임직원 멘토를 학생들과 결연해 진행된다.

**'씨티-JA 히어로' 다문화 어린이 지원  
씨티글로벌 봉사 전세계서 동시 진행**

작년 6월 한국씨티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및 가족·친구·사회이사 등 4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성과 독창성 그리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 올해도 편지 하셨나요?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가  
벌써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에도 가족의 일상에도  
'나눔'이 든든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글짓기 솜씨가 없어도, 글씨가 빠뚤빼뚤해도  
진심 하나면 됩니다

우리 가족 나눔 첫 걸음 -  
제6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기간 | 2014년 3월 3일~5월 30일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  
수상자 발표 | 2014년 6월 말 (hope.gni.kr 공지 및 개별 통보)  
문의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운영본부 02-3278-2284



# 목소리 커진 국민연금, 그래도 '식물주주'

5%이상 보유 87곳… 평균지분 7.98% 불과  
대주주 우호지분 막혀 의결권 행사 어려워

최근 의결권 강화에 나선 국민연금이 순환출자에 따른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평균 지분의 4.6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지분 가치는 51조24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고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연금이 주요주

주인 87개사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가진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 및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으며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도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였다.

이들 87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도 대거 확보하고 있어 최근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훨씬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75%로 높이고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국민연금 30대 그룹 투자 지분을  
상위 30대 기업 단위: 억원

기업명 (순위)	지분 가치	지분율 14년2월	주주 자위	대주주 일가	지분율 차이
LG상사(1)	1400	12.70%	최대주주	27.90%	15.2%
삼성물산(2)	12862	12.70%	최대주주	34.50%	21.8%
CJ제일제당(3)	4562	12.70%	2위주주	44.80%	32.3%
SKC(4)	1384	12.50%	2위주주	12.20%	0.6%
제일모직(5)	4202	11.60%	최대주주	30.10%	18.8%
LS(6)	2685	11.40%	최대주주	33.40%	22.0%
LG하우시스(7)	1744	11.30%	최대주주	50.20%	38.9%
롯데푸드(8)	1176	11.30%	최대주주	47.90%	36.7%
LG이노텍(9)	2068	11.20%	2위주주	47.90%	36.7%
현대건설(10)	7265	11.20%	2위주주	34.90%	23.7%

"지스마트와 경영위기 탈출"  
'아군' 얻은 에스이티아이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에스이티아이 대표이사로 올라서는 이호준 지스마트 사장이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적 악화 국면에 접어든 에스이티아이 역시 지스마트와의 사업제휴 등으로 실적 뒤어운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 사장은 12일 "지스마트는 스마트글래스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하고 에스이티아이의 기존 사업과 함께 지스마트 영업, A/S, 렌탈사업 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스마트글래스의 상담과 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에스이티아이의 실적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스마트는 투명전광유리(아이 스마트글라스) 제조업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글라스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다. 특히 5건, 특히 출원 8건에 기반한 저격 재산권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00억원을 투자해 전자동화 생산 시설을 갖추었으며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지스마트는 2012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이익 23억원, 순이익 21억원을 기록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 하나대투증권 '주마추2' 이벤트

하나대투증권은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인 '스마트하나HT'를 통해 주간 추천종목 중 상승률과 주가지수 등락률을 맞히는 이벤트 '주마추2'를 오는 5월2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추천종목 중 당일 최고 수익률을 보인 4개 종목을 맞힌 당첨자를 오후 4시에 발표하고, 전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 "비밀계좌 고해성사하세요"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에 공문 보내 자체정리 요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비밀계좌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들의 행위가 만연한 것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12일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정리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정리 기한 이후에도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옵션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

들이 자체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권사 임직원들 주식투자 부분을 살피겠다고 선언한데는 그동안 증권사 임직원들이 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의 부국증권 부분검사 결과에서는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과 옵션 등을 거래하다 문제가 생기자 회사에 손을 대는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현재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과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지고 개인에게는 별도로 과태료가 최고 5000만원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khj@

레노버, 모토로라 인수·신용등급 강등·스마트폰 부진

## LG전자 연이은 '신저가 행진'

LG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주가는 11일 전일보다 0.33% 내린 5만9800원을 기록했다. 종가가 6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2년 7월 26일 (5만9800원) 이후 처음이다. LG전자는 올 들어서만 10.7% 하락했다.

특히 2002년 4월 22일 재상장 당시 주가가 6만293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삼성전자, 현

대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끔육적이다.

LG전자가 백을 뜻 주는 것은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부진이 LG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신용등급 강등 판정을 받은 것이 타격이 커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지난달 6일 전후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올해 초부터 등급 하락 이전인 지난 달 5일까지는 LG전자 주식을 119억원어치 순매수했으나 등급 하락 이후에는 매도세로 돌아서 전날까지 271억원어치 내다팔았다. 기관도 외면했다. 기관은 올 들어서만 1280억원 순매도했다.

이처럼 악재들이 겹쳐면서 증권사의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준보다 11% 하향 조정한 것. 삼성증권도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목표 주가를 8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떨어뜨렸다.

문선영 기자 moon@

## '도덕성 암초' SMEC, 유증은 '순항'

226억 규모 주주청약률 93%

SMEC 주가 추이



지난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에스에이(SMEC)의 주주청약률이 93%를 넘어섰다. SMEC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2대 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도해 투자자로부터 공분(公憤)을 산 바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EC는 지난 10~11일 이틀 간 226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과 470만주 모집에 438만6320주가 몰려 청약률 93.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주주 배정과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단

SMEC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고 사내이사가 대표로 있는 2대주주가 주식매각으로 논란을 빚으며 시장의 신뢰를 잃자 유상증자에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결국 사내이사가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2차 발행가액 산정에서 기준주가에 25% 할인율이 적용되며 4125만원으로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됐다. 이는 전일 SMEC의 종가인 5700원보다 1575원 낮은 상황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94%에 달하는 청약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정 기자 lmj@

# 꿈의 에너지 세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 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기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제3의 에너지' 세일가스 전쟁 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세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세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세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세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세일가스 시장장비 대체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세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 ‘2인자’ 삼킨 ISC “글로벌 영토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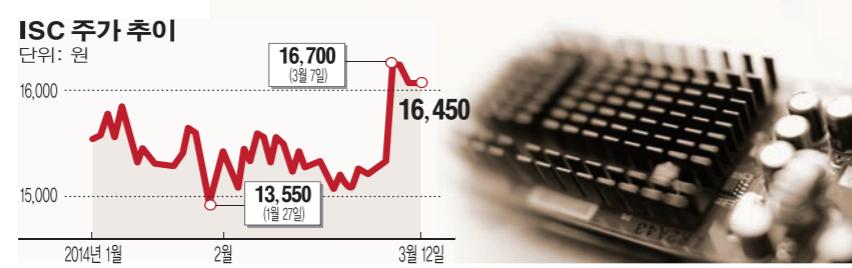
반도체 테스트 소켓 세계 2위 JMT 인수  
원천기술·특허확보…매출확대 드라이브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글로벌 1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ISC가 2위 업체인 일본 JMT를 인수한다. JMT의 단단한 특허권과 기술력을 발판으로 글로벌 1등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ISC는 JMT 인수 자금과 기타 자금 마련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으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70억원 중 JMT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해 22억30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은 스마트폰·자동차·정보기술(IT) 등에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집적회로(IC) 칩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제품이다.

ISC는 JMT를 인수하면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JMT는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소켓 부문에서 연간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일본 기업이다.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ISC의 10% 정도에 불과한 기업이지만, 이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16개국에 32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즉, ISC는 자체 기술과 JMT의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신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으며, JMT의 특허권을 활용해 다양한 시장 방어가 가능하다.

특히 ISC는 이번 인수로 JMT가 진출한 국가를 쉽게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JMT의 고객은 일본, 대만 등에 소재한 반

도체 업체로, 이를 국가는 ISC가 진입이 어려웠던 국가다.

회사 관계자는 “JMT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글로벌 1, 2위의 좋은 기술이 결합되면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글로벌 매출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을 직접 인수하면 조금 약한 대만, 일본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1000억 어디쳤나… ‘속모를’ 알란팀 ‘속타는’ 영풍家

총수일가 수혈·감자에도 자본잠식… 추가 지원여부 관심

영풍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알란팀 때문에 그룹 총수일가의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다. 회사 설립 이래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나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전년대비 반토막 나고 수백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를 실시했음에도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면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도 솔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란팀은 지난해 23억원의 매출과 241억 원의 영업손실, 23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연도 50억원에서 반토

タル했다. 고려아연과 코리아니ovel, 영풍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820억원을 지원했고 최명예회장과 최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의 아들인 세준·세훈씨도 지원에 나섰다. 특히 최 회장 부자(父兄)가 2010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투자한 자금 만 695억원에 달한다.

알란팀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실적은 좀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알란팀은 설립 이듬해인 2009년 7억원의 매출과 84억원의 영업손실, 5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1년에는 영업손실 155억 원, 순손실 111억원이 발생했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출 성장세가 꺾이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토비스 최대주주 일가 12만주 매수

토비스 최대주주 일가가 장내 매매를 통해 12만주가 넘는 회사 주식을 사들여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비스의 최대주주인 김용범 대표의 아내 정미정씨와 자녀 3명(김산·김민균, 김지우양)이 지난 7일 각각 3만800주씩을 장내 매수하며 총 12만3200주를 취득했다. 이들이 이번 주식 취득을 위해 들

인 금액은 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김 대표의 아내와 자녀들도 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특수관계인에 포함, 특수관계인 수는 기준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수는 기준 234만 2051주(지분율 14.01%)에서 246만5251주(14.75%)로 늘어나게 됐다.

토비스 관계자는 “개인적인 여유 자금

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을 늘린 것”이라며 “주가 부양 목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 유진기업 주가 급등하자 사장도 “다 팔자”

### 불 불은 주가에 찬물 뜯는 임원들

유진기업이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에 급등하는 사이에 주요 임원들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불과 하지만 한참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은 지난 7일 보유주식 4만2368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3839원으로 이번 주식 매도를 통해 정 사장은 1억600만원 가량을 현금화했다. 류득현 연구소장 역시 같은 날 보유주식 2만3217주를 전량 처분했다.

유진기업은 최근 잇단 호재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84억 44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대비 흑자 전환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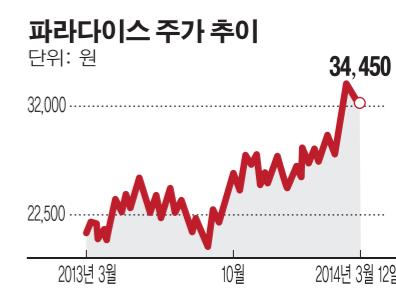
주가치 극대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자사주 형태로 보유 중인 216만3043주를 소각



하는 방식의 감자(자본감소)다. 일반적으로 감자는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하지만 유진기업의 이번 감자 공시는 호재로 여겨졌다.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는 데 비해 발행주식 수가 그만큼 감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그만큼 높아졌다기 때문이다. 주식소각 공시가 이후 유진기업의 주가는 6거래일간 12.14% 올랐다. 연초부터 따지면 유진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36.86%에 달한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정 사장과 류 소장의 보유주식은 0가 됐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 신고가 랠리’ 파라다이스 범인세 환급까지 ‘잭팟’

파라다이스와 파세 관계으로부터 140억원에 달하는 범인세를 환급받게 된다. 최근 외국인의 러브콜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번 범인세 환급 조치에 따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원의 범인세를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환급가산금을 포함하면 총 152억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1년 범인세 통합세부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한 범인세 148억76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2010년 범인세 신고·납부 내용에 대해 2011년 통합세부조사를 벌인 뒤 같은해 10월 파라다이스에 14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VIP 유통 비용을 매출원가가 아닌 접대비로 인정하며 148억원을 추징했다.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매출 대비 20% 이상 사용하는데 국세청은 이를 원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보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소송을 벌였고, 조세심판원은 최근 범인세 환급을 결정했다.

김미정 기자 mjk@

## ‘고배당’은 옛말… 고개숙인 에이블씨엔씨

### 배당성향 증가했지만 규모는 줄어

화장품 브랜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가 실적 부진에 고배당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는 당기순이익이 급감해 나타난 작시효과일 뿐 실제 배당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1%이며, 배당금 총액은 34억1118만원이다.

에이블씨엔씨는 2009년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0원에서 2012년 500원으로 꾸준히 고배당 기조를 유지했다. 배당성향은 2010년 이후 13%대였다. 배당성향이란 회사가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를 배당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배당은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에이블씨엔씨의 배당성향은 2012년 12%에

서 2013년 27%로 증가했지만 배당 실속은 전면 못 하다는 평가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지난 3년 간 (2010~2012) 24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에이블씨엔씨의 DPS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배당성향이 10% 이상 유지된 것도 이 기간이다. 그러나 2013년 126억원으로 2012년 대비 70%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영업이익까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부진’에 빠졌다.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져서 배당성향이 높아진 것뿐 실제 DPS주당배당금은 낮아졌다”며 “그러나 고배당 회사의 경우 배당성향이란 DPS를 줄여들면 부정적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은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블씨엔씨의 최대주주는 지분 28.04%를 보유하고 있는 서영필 대표다. 서 대표는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 당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황윤주 기자 hyj@



Photographer\_Rodney Smith

시연계약 | sonata.hyundai.com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행용사와 김판사를  
빼고, 빼고, 빼고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RUN| TURN| STOP| PROTECT|**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네] 가지

3월 24일

본질로부터

**SONATA**